



북한의



정치와 사회

1주차

박상희 교수

인 하 대 학 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센터
K-ACADEMIC DIFFUSION RESEARCH CENTER

01 과목소개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좌는 그러한 북한의 그림, 사진, 기념물, 영상 등 다양한 정치 선전의 시각적인 자료를 해석하면서 북한을 만나는 수업입니다. 직접 북한에 가서 보기는 어렵지만, 시각적인 도상으로 북한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도상의 분석에 있어서 서구 정치사상의 논의들을 적용하여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 사회적 특징을 또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02 강의방식

강의

퀴즈

03 주차별 구성

1주차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
2주차	보천보전투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허구
3주차	주체사상 : 유일사상체제와 미학적 대칭 구조
4주차	신정정치 : 북한 김일성 초상화에 드러나는 얼굴의 권력
5주차	세습권력 : 김정일-김일성의 이미지 유사성과 차별화
6주차	사회정치적생명체 : 북한 인민의 환영적 신체
7주차	수령형상창조원칙 : 지도자와 인민의 정치적 관계
8주차	주체사실주의 : 신화적-초현실적 리얼리즘
9주차	천리마·만리마 속도전 : 북한의 경제와 인민의 동원
10주차	정치적 풍경화 : 기억과 망각의 정치적 장치

04 1주차 키워드

- 강의 소개
-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 북한 체제
- 전체주의

강의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

1-1 강의 소개

안녕하세요.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강의하게 된 박상희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깝고도 먼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물질적인 거리를 생각하면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매우 친밀한 존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거리를 생각하면 참으로 멀고도 먼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정치적 이념,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 등 많은 것들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민족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알고, 북한을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좌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깝고도 먼 북한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에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북한을 이해하자고, 공부해보자고 하면 또 어렵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여겨지거나 다소 따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가 무엇인지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 <북한의 정치와 사회>는 북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주로 북한의 그림, 기념물, 사진 등의 구체적인 시각적인 도상을 소개하고 해석하면서 북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북한의 실체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첫 강의라서 이 강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총 1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는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을 다룰 예정입니다. ‘북한’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 북한 이해를 위한 첫걸음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에 대한 논의도 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낯설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집권과 권력의 세습이라든지, 강력한 수령제와 지도자를 신화화하는 신정국가의 특성, 그리고 군 중심의 유격대 국가의 모습, 혹은 스펙타클한 보여 주기식의 정치를 펼치는 극장 국가의 면모를 대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전체주의적 정치체제의 성격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한 다큐멘터리 <어떤 나라>를 통해서, 북한에서의 대중의 국민화와 북한 인민들의 일상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보천보전투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허구’를 다룰 예정입니다. 짧게나마 북한의 역사를 다루면서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산화가 되었고, 많은 정치세력 가운데에서 어떻게 김일성이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특히 항일혁명기에 김일성의 명성을 가져다 준 보천보전투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천보의 화불> 그림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3강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유일사상체제와 미학적 대칭 구조’에 관한 논의를 통해, 북한 정치의 특색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내용, 그리고 <주체사상탑>에 드러나는 미학적 대칭 구조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강에서는 ‘신정정치 북한 김일성 초상화에 드러나는 얼굴의 권력’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성 중 하나는 신정정치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김일성의 초상화 4컷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도자의 얼굴 사진이 아닌 지도자의 초상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초상화를 도상 해석하는 과정에서 초월적이고 신격화된 김일성이라는 지도자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강에서는 ‘세습권력 김정일-김일성의 이미지 유사성과 차별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북한은 권력을 세습하는 독특한 국가인데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세습되는 과정에서, 이들 지도자의 이미지는 어떻게 시각화되었을까요. 김정일은 한편으로는 아버지 김일성의 정치적 정당성을 이어받고자 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지도자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북한의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강에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 북한 인민의 환영적 신체’라는 주제로, 북한 인민들은 북한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재현되는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이나 지도자의 신체를 자연적 신체와 정치적 신체로 나누는 ‘왕의 두 신체’를 논의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인민에게도 두 신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서는 인민의 생명을 ‘육체적생명’과 ‘사회정치적생명’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민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시각적 재현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지난날의 용해공들>이라는 그림과 소련의 <불가강에서 배고리는 인부들>이라는 그림을 비교해보겠습니다.

7강에서는 ‘수령형상창조원칙 지도자와 인민의 정치적 관계’라는 주제로, 북한에서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가 시각적인 도상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령형상창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림의 구도, 그러니까 배치나 위치에 따라, 그리고 밝기, 크기, 색 등에 따라 지도자와 인민의 정치적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만나보겠습니다.

8강에서는 ‘주체사실주의 신화적-초현실적 리얼리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그들의 예술을 주체사실주의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련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체사상과 결합하면서 주체사실주의라고 강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용어의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신화적이고 초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술을 사실은 ‘신화적-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소련과 북한의 도상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강에서는 ‘천리마·만리마 속도전 북한의 경제와 인민의 동원’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선전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김일성 시기의 천리마와 최근 김정은까지의 만리마 속도전에 대한 다양한 선전화, 그러니까 북한의 포스터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선전화는 1958년의 선전화인데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리뉴얼하고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선전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와 인민의 동원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주체의 개념들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강에서는 ‘정치적 풍경화 기억과 망각의 정치적 장치’라는 주제로, 북한의 풍경화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경화라고 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먼 순수예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의 풍경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풍경화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 그리고 구호나무, 붉은 하늘과 다리, 파도 등의 다양한 풍경화 그림들을 함께 보면서 해석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이번 강의는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전체적 강의에 대해 소개했고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며 느끼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북한은 사실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라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관해 가지는 이미지는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느 하나에 관한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북한의 이미지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노랫말처럼 이중적인 면이 있죠. 그 이중적인 시각에 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정치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나눠 개괄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관해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 북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고 북한을 파악해보려는 노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정치 체제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북한 체제의 특성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 체제가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체주의 정치체제와 북한 체제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우선 전체주의 개념에 관해 논의한 프리드리히-브레진스키의 전체주의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특성과 북한 체제를 간략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북한의 전체주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집단 체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니엘 고든 감독의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북한의 집단체조와 같은 집단 공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로 인한 대중의 국민화 과정과 인민의 일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

1-2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시간에는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하면, 김정은, 핵무기, 기근, 혹은 일사불란한 단체공연 같은 것들이 떠오르나요? 이러한 키워드를 떠올리다 보면, 무심코 북한은 아주 이상한 혹은 괴상한 국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사회적인 모습들이 다른 나라와는 상당히 달라서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고 주변국들은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괴상한 국가이다.’ 그래서 북한은 인민들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완전히 획일적인 사회이다. 북한 인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리고 위험하고 공격적인 무력 국가이다. 북한은 범죄 국가이다. 북한은 인민들을 굶기고 있다.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 국가이다. 이것은 사실 헤이즐 스미스가 쓴 『장마당과 선군정치』라는 책에서 북한의 이미지, 혹은 어떤 고정관념, 즉 ‘뻔한 클리셰’라고 말하는 내용을 뽑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이러한 뻔한 클리셰를 넘어서 북한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뻔한 이미지를 넘어서면 좀 다른 북한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뻔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부 틀린 내용도, 또 전부 맞는 내용도 아니겠죠. 그런데 일부는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있기도 하고 또 일부는 오해나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은 인민들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완전히 획일적인 사회이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종종 TV나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는, 북한의 단체공연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북한의 집단체조를 보여주는 단체공연 모습인데요. 북한의 이러한 단체공연, 매스게임, 그리고 단체로 보여주는 카드섹션 등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곤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이 강의 후반부에서는 실제 북한에서 매스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에 관한 논의를 할 텐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이 매스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북한은 인민들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완전히 획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북한 인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한다.’라고 생각하죠. 여기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사진이 보이죠. 아래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자동차도 서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초상화들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지요. 이 압도적인 크기에서 북한 지도자의 권력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상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이후 강의에서 꼼꼼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초상화는 북한에서 내걸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실제로 북한 인민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는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상교육과 더불어, 지도자를 향한 찬양과 영광의 패러다임이 넘치고 있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북한을 탈출하려는 탈북자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북한은 위험하고 공격적인 무력 국가’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북한은 수시로 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위협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까지 주고 있으니, 안보의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장면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배포한 영상 중 하나입니다. 이 장면이 포함된 북한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여러분도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북한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이런 공개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던 영상이죠. 이 영상을 보면 마치 무슨 <마블> 영화나 <탑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혹은 현란한 광고의 한 장면처럼 ICBM을 발사시키는 장면을 매우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 <탑건>의 오프닝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들이 이착함하는 모습을 담은 오프닝 장면에서는, 비행 갑판 위에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통제 요원들의 모습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있죠. 것처럼 북한의 영상도 ICBM을 실은 자동차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현란한 카메라의 각도, 선글라스를 쓰고 가죽 재킷을 입은 김정은의 등장, 시계를 보는 모습, 지시하는 손동작, 그리고 실행하는 군인들의 반복된 제창 등 매우 리드미컬하게 연출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주인공이 톰 크루즈가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카메라의 연출과 속도감이 아직은 영화만큼은 못 따라간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스펙타클한 시도는 북한이 정말로 극장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극장 국가라는 개념은 이어지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이제 북한이 무력 부문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펙타클한 영상과 달리, 실제로 ICBM이나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는 행위나 핵실험을 하는 행위 등은 주변국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의 무력 사용은 사실상 국제관계와 외교무대에서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로써는 한반도의 평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겠죠.

네 번째로, ‘북한은 범죄 국가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2017년에 북한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형이었던 김정남이 화학무기인 VX 용액으로 암살당한 사건, 그리고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 처형사건 등은 외부에서 보기엔 북한을 범죄 국가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예를 들면, 장성택 처형의 경우, 북한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 군사 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즉시 집행했습니다.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서 모습을 대내외에 공개함으로써,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북한의 공포정치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러한 장면은 북한의 고위층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 중심'의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고, 김일성은 '이민위천' 즉,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고 주장했죠. 김정은은 그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면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그의 통치방식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공포정치가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선로동당 간부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멸사복무,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한목숨과 인민의 행복을 맞바꾼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북한의 문헌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품을 바로 잡는 데서 주되는 장애는 당세도,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당세도와 관료주의는 당과 대중을 갈라놓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 독소이며 기본 장애물이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단순히 일군들의 성격상 문제나 사업 작품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성의 문제이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 일군들이 군중의 신망을 잃고 정치적 생명에 오염을 남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권위가 훼손되고 사회주의의 영상이 흐려지며 종당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되는 것이다. 장성택의 죄목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서는 동상이몽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또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를 했고, 2009년 화폐개혁의 책임까지 물어서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고 인민 생활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기에, 이러한 행위는 장성택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그 세도와 관료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며, '당과 대중을 갈라놓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부의 입장에서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것이 곧 인민대중제일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는 것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실제로 인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북한은 인민들을 굶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략 1994년부터 1999년경까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위기로 북한 체제의 붕괴 위기까지 가게 되기도 하죠. 이때 약 50~60만 명가량이 아사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겪었고, 여전히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일반적인 인민의 삶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했던 북한은 식량난이 더욱 심화하였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죠. 우리로써는 북한의 인민들이 굶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는 아니죠. 여전히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그 시대의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틀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 사회는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배급제가 힘들어진 것이 한 이유가 되었으나,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도 하죠. 21세기 초의 다른 많은 국가처럼 북한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수사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북한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변화를 겪고 있죠. 그에 따라 북한의 일상생활에도 여러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남한, 우리나라가 보는 북한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북한은 같은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는 하나의 국가였죠. 그러나 분단과 전쟁으로 서로 다른 정치적 실체를 가진 존재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한편으로는 민족적으로 같은 동지이면서, 또 다른 안보적 시각에서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적인데요. 그래서 대북 인식의 이중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당사자로 인식하는 시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을 우리의 안보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시각입니다. 먼저 북한을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남북은 단일민족이며, 같은 역사와 문화, 생활 습관 등 공통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권 붕괴와 더불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남북한 간에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죠.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과 북은 상호체제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기존의 배제와 대결의 대상에서 인정과 공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협력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죠. 그리고 좌절되기는 했으나,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 6.25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겪었고, 그 이후로도 연평도 포격 도발, 연평해전, 천안함 공격 등 군사적 충돌과 갈등, 긴장이 수시로 발생하여 왔죠. 그것이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이어져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남북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보적인 관점만 강조한다면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가 어렵고, 또 그 안보적 관점을 무시해도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을 공존공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하며,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북한의 실상에는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공식 세계의 북한과 실제 북한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있다. 북한 체제의 선전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 같지 않을 수 있어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 이외에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내용은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북한 이해>에 쓰인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들이 외부적으로 ‘선전하는 북한’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실제하는 북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실제의 북한에 대해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의는 그것을 거꾸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즉 ‘선전하는 북한’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북한의 내부, ‘실재하는 북한’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정치 선전의 도구로 사용되어 온 그림, 사진, 동상, 기념물 등의 시각적인 도상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북한 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

1-3 북한 체제의 특성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치와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먼저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개괄하려고 합니다.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과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방식, 당 우위의 체제 등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수령 중심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 등은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수한 정치적 특성이기도 하죠.

먼저 북한은 1당 지배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국가, 즉 노동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입니다. 이는 권력을 장악한 일당이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여타의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관은 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있으며 모든 정책도 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체제입니다. 초창기 북한의 통치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였는데,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게 되죠. 이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추가되었고, 이러한 통치이념은 북한식 수령 체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은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 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 4월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3조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대체하여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김정일의 선군사상, 김정은의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은 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 최고지도자가 군림하는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 구조를 하고 있죠. 수령은 영도의 핵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입니다. 수령중심의 체제 논리는 1974년 발표한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드러나고 있죠. 수령이라는 칭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한정된 칭호입니다. 2016년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고,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수령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2019년 4월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의 권한을 부여했고,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어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북한은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면서, 지도자를 신성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정국가의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체제는 강제에 의한 것이든 동의에 의한 것이든 대중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특성이 있죠.

북한 체제의 경제적 시스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개념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죠.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거나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명령 경제체제 즉,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은 경제 위기로 1990년대 이후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 등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장마당 등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주의 책임 관리제는 그동안 시범 실시되었던 여러 조치들을 종합하여 2014년에 도입하였는데요. 이 제도는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높여 계획과 경영 권한을 기관과 공장, 협동단체에 대폭 이관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제도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원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특성도 보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사회적인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의무와 권리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할 북한의 매스게임은 북한의 집단주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혈육을 중심으로 하는 보통의 가정, 다른 하나는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당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는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

1-4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성에 기반하여 북한 체제의 정치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 신정국가, 유교 국가, 가족국가, 유격대 국가, 정규군국가, 수령제 국가, 극장 국가 등 다양하게 규정하는 논의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성격 규정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보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지도자의 절대 권력은 초인적인 것으로서, 북한은 김일성 1인을 신성시하는 신정국가라고 보는 입장이지요. ‘북한의 경우는 모든 권위의 원천을 김일성의 위대성에 귀일시키고 있다. 통치권위를 조직이나 직위 또는 인민의 지지 등과 연계시키지 않고 자연인의 초인간적 위대성, 즉 신성에서 도출하게 되면 그 정치체제는 신정체제로 된다. 북한 체제는 이 점에서 20세기의 다른 전체주의 정치체제와 다르고 오히려 제정일치 시대의 신정체제나 왕권신수설에 바탕을 둔 절대군주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신정 국가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의에서, 다양한 북한의 시각적인 도상을 살펴보면서, 지도자가 어떻게 신성하고 초월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브루스 커밍스의 경우는 북한을 유교 국가로 설명합니다. 유교는 봉건적 군신 체제 또는 중앙 집중적 왕권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정치의 본질을 묻는 제자에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유교는 군신 체제, 중앙 집중적 왕권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그러한 특성이 북한의 주요한 정치적 특성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로, 북한의 초기 혁명 정치를 연구한 암스트롱은 북한은 유교적 가족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결합한 국가라고 봅니다. 특히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효성에 주목하는 것이죠. 혹은 민중과 최고지도자의 관계는 꼭 친족 간의 관계 같아서, 현대 공산주의체제의 북한을 한 가족국가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수령의 역할은 전통사회에서의 한 가정의家長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그가 바로 국사에 대한 모든 지혜의 원천이며, 국가의 운명은 꼭 한 가정의 운명을 닮았다고 말하면서 북한을 가족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와다 하루키는 북한 정치사에 관한 그의 중요한 연구서, 『북조선: 유격대국가의 현재』라는 책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격대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와다 하루키는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항일유격대원의 모범화에 이어 주체사상이 확립됨으로써 새로운 국가체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일성이 유격대 사령관이며 전인민이 유격대 대원인 국가, 이를 유격대 국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더 나아가 권헌익·정병호는 유격대 국가와 가족국가의 개념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권헌익·정병호는 와다 하루키는 북한 정치사에 관한 그의 중요한 연구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격대 국가’라고 정의했다. 또한 빨치산들의 활동은 강력한 외부세력에 맞서는 전통적인 것인 반면에, 그들의 내적 유대는 부성애와 효성이라는 강력한 가치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 조직을 닮은 것으로 묘사된다. 북한의 연출에서 가족적인 우호 관계는 혁명 활동의 핵심 요소로서 또한 그 연장선에서 혁명 국가의 근원적 미덕으로 부각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 사후에, 유격대 국가의 개념을 수정하고 ‘정규군국가’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사후의 체제변화, 즉 김정일의 새로운 체제를 포착하는 데에는 유격대 국가보다는 ‘정규군국가’로 봐야 한다고 보고한 것이죠. 1998년에 쓴 『북조선: 유격대국가의 현재』라는 책은 2002년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라고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수령제 국가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수령의 영도 아래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체계와 규율을 제도와 사상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말하죠. 즉, 소련형의 당-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올려놓은 수령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극장 국가라고 규정하는 논의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와다 하루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김일성을 유격대 사령관으로 하고 전인민을 유격대 대원으로 여기는 유격대 국가는 클리퍼드 기어츠가 말하는 ‘극장 국가’다. 그는 권력이 의례를 통해 과시되면서 연극화하는 국가를 극장 국가라고 불렀다. 북한의 유격대 국가는 바로 그가 말하는 바, 현대에 유례를 찾기 힘든 극장 국가가 되었다. 유격대 국가는 극장 국가로서 설계사, 연출가를 필요로 했다.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수령의 아들 김정일이었다. 와다 하루끼는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의 인도네시아 제의 정치와 권력의 스펙터클에 관한 고전적 연구를 인용하여 ‘극장 국가’라는 개념을 소개했죠. 그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 과정과 발전을 이해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권현익·정병호는 이러한 와다 하루끼의 극장 국가 개념을 가져와서, 주로 북한의 공공예술 작품이나 대규모 스펙터클에 대해 검토하면서, 북한의 극장 국가적 성격을 탐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에 관한 연구는 노래, 연극과 영화, 군중 집회와 대규모 행사,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사상보급과 선전의 도구 등 대중 정치의 여러 기술에까지 탐구영역을 확대하곤 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선전 양식들을 폭넓게 ‘혁명예술’이라 부르며 이들의 보급방식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인위적 예술정치를 통해 카리스마 권력의 자연적 도태에 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현대적 극장 국가의 탄생이다.” 이러한 극장 국가의 개념은 북한의 시각적이고 스펙타클한 선전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절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체제를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죠. 이것은 아직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들을 함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 중에서, 북한은 전체주의적 특성과 함께, 신정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에 관한 논의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

1-5

전체주의 정치체제와 북한 체제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북한의 정치체제를 요약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1당 지배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국가이며, 지도자 1인을 중심으로 한 수령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를 전체주의 체제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프리드리히-브레진스키는 1956년에 발표한 저서, 『전체주의 독재와 전제정치』에서 전체주의 전제 정치체제의 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브레진스키 모델'은 냉전기의 전체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개념화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전체주의적 독재'의 6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존재입니다. 전체주의적 공식 이데올로기들은 기존의 사회를 급진적으로 거부하면서 천년왕국같은 완벽한 세계의 비전을 담는 특성이 있었죠.

두 번째, 대개 한 명의 독재자가 지도하는 단일 대중 정당이 존재합니다. 이 당원들은 공식 이데올로기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당은 정부 관료조직을 지배하거나 그 조직과 불가분하게 얽혀있죠.

세 번째,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체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치는 당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도자의 편에서 당을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테러는 정권의 적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계급들에 대해서도 행사됩니다.

네 번째, 모든 매스컴 수단을 거의 완벽하게 독점하고 통제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무장 전투 수단을 거의 완벽하게 독점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 전체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휘 통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체제,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그리고 스탈린의 소련에도 적용했던 정치적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이 개념은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련 공산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 사회 일반을 비판하는 냉전의 개념적 도구로 쓰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개념들의 특징은 파시즘을 자본주의의 산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던 당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는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와 공통점이 많은 체제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과 테러가 행사되는 정치적 과정과 수단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주의를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1년에 출간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 서술된 전체주의 개념은 기존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인간학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개념은 전체주의 국가권력이 행사하는 총체적 테러의 제도적 장치와 수단들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아렌트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전체주의 국가에 의한 총체적 테러의 조건 속에 놓인 인간들의 인간성의 존재 양식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렌트가 말하는 인간성은 주체성, 자발성, 사유 능력, 그리고 개성, 집단적 연대와 같은 인간 정신 내면의 요소들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렌트가 말하는 전체주의는 ‘총체적 지배’, ‘총체적 테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총체적 지배는 철저한 지배를 말한대기보다는 그 지배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체적 테러의 본질적 기능과 효과는 인간의 다양성을 파괴하여 모든 인간을 하나처럼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고 아렌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성의 박탈은 모든 인간의 획일화를 실현하고, ‘인간의 잉여성’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아렌트 전기를 저술한 엘리자베스 영 브뤼이 정리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의 핵심 요소 5가지'는 다음과 같죠. 첫 번째, 세계와 역사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제시하는 가운데 우월한 민족'과 '내부의 적'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두 번째, 총체적 테러이다. 나치의 집단수용소와 소련의 노동수용소가 전형적이다. 세 번째, 자연적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가족을 해체하고, 출신성분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적 영역을 전부 파괴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관료체제에 의한 통치이다. 단순한 관료주의를 넘어 통치 수단으로 군대보다 비밀경찰을 신뢰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일종의 '절대적 주권을 주창하며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 사이의 집단적 연대의 상실, 인간 개성의 파괴와 인간의 잉여성 등의 논의가 덧붙여진다면 아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을 더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전체주의 개념에서, 총체적 테러의 결과로 초래되는 인간학적 결과들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권력의 테러 행사의 양태로 전체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갔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마다 혹은 냉전을 전후하여 시기에 따라 전체주의를 규정하는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아렌트의 경우는 국가권력과 테러의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존재 양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체주의로 근본적인 인간성의 상실까지, 그러니까 그 참담한 인간적 결과까지 치열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아렌트의 깊은 의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들여다보려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만나볼 수 없으므로 이처럼 북한 인민들의 인간성의 존재 양식을, 그 인간성의 상실까지를 들여다보기에는 많은 연구의 제한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냉전의 개념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선은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가 밝힌 전체주의의 공통된 특성 6가지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체제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체제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 지칭된다고 하면서, 히틀러의 나치당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통치 등을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죠. 이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6가지 조건을 북한 체제와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는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지배하는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이 존재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습하여 1인 지배하는 조선로동당이 존재하고, 당과 비밀경찰, 예를 들면 국가보위부에 의한 테러 체제, 라디오, TV 채널마저 고정해 놓았을 정도의 대중매체 독점, 그리고 무장력 독점, 중앙통제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북한은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가 제시한 여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전체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전체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도자 1인을 신성시하고 그의 무한한 권력을 인정하고 있는 신정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전체주의 특성에 관해 이야기했으나,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강의에서는 북한의 신정국가적인 특성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

1-6

대중의 국민화 : 다큐멘터리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북한은 어떻게 대중의 국민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즉, 북한 인민은 어떻게 김일성의 인민이 되었을까요?

먼저, 이러한 내용을 숙고해 볼 수 있는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다니엘 고든 감독의 <어떤 나라>라는 2005년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다니엘 고든은 2002년에 제작한 <천리마 축구단>에 이어, 두 번째 작품으로 이 <어떤 나라>를, 그리고 2006년 <푸른 눈의 평양시민>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천리마 축구단>으로 고든 감독에게 호의를 가지게 된 김정일 정권은 그가 매스게임을 준비하는 두 소녀와 그들의 가족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게임의 일부를 촬영하도록 허가해주었죠.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북한의 두 소녀, 현순이과 송연이가 실제로 2003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의 매스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북한 체제의 집단주의적 폐쇄성에 대해 다니엘 고든은 무조건 비판적인 시선으로도, 또 무작정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 사람 스스로 입을 통해 자신의 조국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 찬양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담음으로써 이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무조건적인 편견을 풀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고든의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앞서, 이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집단체조에 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집단체조는 1947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첫선을 보인 후에 1971년 11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산하에 <집단체조 창작단>이 설치되었고, 평양체육대학에는 <집단체조 창작학과>가 생겼습니다. 이로써 체제 과시의 목적하에 북한 특유의 '집단체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 따르면 집단체조는 대집단이 망라되는 종합적인 체육 예술로 체조와 무용 율동을 기본 표현 수단으로 하며 수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방대한 규모의 체조 예술 형식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랑스런 승리의 노정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역사적인 화폭 속에서 대서사시적 형식으로 반영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북한에서는 정치 교양의 훌륭한 수단으로 이 '집단체조'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행사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5~10만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체조를 공연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체조 공연이 결정되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 주로 평양 시내에 사는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동원됩니다. 이 기간 크고 작은 물품을 준비해야 하고 동원된 이후에는 쉴 새 없이 반복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몸이 허약한 학생들은 기진맥진하게 되지만,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곧바로 지도 선생의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드섹션'입니다. 북한에서는 '배경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그림과 글자 그리고 입체적이고 율동적인 형상으로 체조대와 음악이 표현하지 못하거나 형상하기 어려운 사상과 주제를 설명해 주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대에 동원되는 참가자들도 어린 학생들이죠. 북한의 카드섹션은 그 규모와 순간적인 기술에, 그리고 정교하고 장엄한 장면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동작을 연출하는 학생들은 피땀을 흘리며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공연 내내 긴장을 해야만 하겠죠.

북한의 공연예술은 집단주의적 정신을 기초로 집회적 성격이 강한 공연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 장르의 혼합이나 스타디움에서의 대규모 공연 형식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1999년 김정일의 지시로 만들어진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이라는 것은 북한의 공연 형식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인데요. 연 10만 명의 배우가 출연하고 15만 석 규모의 대형 스타디움의 대부분을 무대로 활용합니다. 기존의 집단체조에 새롭게 예술 공연 즉 음악, 연극, 무용, 교예 등을 배합해서 만든 대규모 스타디움 공연이 바로 이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인 것이죠.

즉, 집단체조와 함께, 배경대에서는 카드섹션이 펼쳐지고, 거기에 무용 장면과 전문예술가들의 독창, 연기 등 예술성이 강화된 공연입니다. 이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은 비파다 가극단, 만수대예술단, 평양교예단 등 북한 최고의 전문예술가 집단이 출연하여 예술적 표현을 강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무대장치 및 조명이 활용되고 있죠. 과거의 집단체조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체육 행사의 일부였지만, 이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은 문화성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서 첫선을 보인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은 2002년 <아리랑> 공연을 통해 북한에서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매스게임은 사실 체조와 음악이 어우러진 엄청난 종합예술이죠.

하지만 과거 독일의 히틀러 전체주의 시대에 국민체조를 강조한 것만큼이나 대중의 국민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정치성을 내재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이나 교육으로만 강조하는 집단주의와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배우는 집단주의는 다를 수밖에 없죠.

독일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연구한 조지 모스의 『대중의 국민화』라는 책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민족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에 적합한 국민의례를 구성하는 신화와 상징을 제공한 것은 민족 기념비와 공공 축제였다. 하지만 그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 도입부에 일부 단체는 새로운 세속종교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당시 독일의 공공 축제는 체조동호회, 남성합창단, 사격동호회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집단체조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 모스의 체조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조를 통한 조국애’는 ‘가르침과 삶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었다. 육체와 정신의 통일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체조동호회는 자신들을 민족중흥의 촉매제로 생각했다. 축제가 애국적 정신이 작동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믿었다. 행위와 상징은 군중 사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다. 그런 의례는 신성한 행위를 의미하며, 무질서한 군중을 어느 정도 규율을 갖춘 대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체조동호회원들의 축제는 꾸준히 육체적 수련을 민족적 상징 및 의례와 결합시켰다. 그것은 일종의 숭배 전당이였다. 전국체조기념식을 위한 특정 공간이 된 것이다.

독일의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요. 히틀러의 <의지의 승리>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봐도, 늘 의문인 것은 어떻게 이 시기 대중들은 저렇게 히틀러를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조지 모스는 “독일 대중은 어떻게 히틀러의 국민이 되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이러한 체조동호회, 사격동호회, 남성합창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 연극, 영화, 합창, 오페라, 매스게임, 스포츠, 군중대회, 조명, 행진, 국민의례, 조각상, 기념비 이런 등등이 대중의 국민화를 가능케 한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체조를 통한 조국애는 가르침과 삶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며, 체조를 통한 육체와 정신의 통일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북한에서의 매스게임은 ‘전체를 위한 하나’라는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스펙타클한 집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민들은 육체와 정신의 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공산주의자형 인간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큐멘터리 <어떤 나라>는 북한의 매스게임을 준비하는 기초적인 연습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장면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스게임에 체조선수로 참여하는 두 소녀, 열세 살 현순이와 열한 살 송연이는 아직 어린데도 혹독한 훈련을 참아내며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습하는 장소가 차갑고 까칠한 시멘트 바닥인 것이 참담하게 느껴지는데도, 이 소녀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날, 두 소녀는 위대한 장군님이 공연을 참관하지 못해서 매우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지도자를 존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나라>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로 가는 대중의 국민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현순이와 송연이를 통하여 북한 인민의 일상을 살며시 들추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큐는 평양에서 사는 북한 지식인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교수이지만, 그럼에도 굶주렸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정전이 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북한 인민들. 다니엘 고든은 이러한 북한의 불완전함을 북한 인민들의 입을 통해 담담히 전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가정에는 하나밖에 없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고, 가정마다 설치된 라디오를 보여줍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줄일 수는 있으나 끌 수는 없다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동안 두 소녀의 일상들도 보여주죠. 소녀들의 실수들, 재잘거림과 소망들, 좌절과 기쁨들을 보여주는 현순이와 송연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평범하고 꿈 많은 소녀이기도 합니다. 그 어디에서든,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은 어쩌면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그런 평범함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매스게임을 통한 전면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사회를 보여주고, 그와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 남한에는 북한은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북한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개괄하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고, 북한 정치체제를 해석하고 규정하는 다양한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로 보는 입장도 있고, 신정국가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유교국가, 유격대 국가 등등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 체제의 특성은 이러하다, 라고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 강의에서는 전체주의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서, 전체주의 정치체제와 북한 체제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치체제를 곧바로 전체주의국가다, 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신정국가, 극장 국가와 같은 여러 특성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전체주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인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북한의 대중의 국민화 과정과 인민의 일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흥미롭게 북한을 만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cture

Nationalization of the Public :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1-1 Class Introduction

Hello. This is Park Sang-hee, who will lecture on 'Politics and Society in North Korea.'

North Korea seems to be a very close yet distant existence to us. Considering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Korea and North Korea, they are spatially closest, and they are very intimate beings who share the commonality of being of the same ethnicity as us and speaking the same language. However, if you think of the invisible psychological distance, it seems that it is a very far away existence. This is because many things, such as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system, economic system, and social culture, operate differently from our country.

However, it is also a relationship in which we must closely cooperate with North Korea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e process of knowing and understanding North Korea seems to be very important. I hope that this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lecture will be a meaningful guide for you to know and understand North Korea, which is near and far.

However, if you try to understand and study North Korea, you may find it difficult, ambiguous, or somewhat boring. I think it's because it's not a situation where we can go and see and experience North Korea, so we feel very abstract about what North Korea really is. So, from now on, this lecture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will discuss North Korea by introducing and interpreting concrete visual icons such as North Korean paintings, monuments, and photographs, along with explanations of North Korea. Then, since it is visual, I think that the reality of North Korea will be felt a little closer.

Since this is the first lecture, if I introduce this lecture as a whole, it consists of a total of 10 lectures. First of all, today's topic will deal with the public's nationalizatio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 can be said that it is a step in preparing for the first step toward understanding North Korea, such as what images come to mind when we hear 'North Korea' and how we view North Korea.

Furthermore, I'm about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Since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is different from ours, you may feel that it has a very strange and in some way incomprehensible political structure. For example, we may come face to fa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theocracy state that mythologizes long-term rule and power, a strong Suryeong(Supreme Leader) system and leader, a military-centered guerrilla state, or a theater state that unfolds spectacular show-style politics. And among them, the nature of the totalitarian political system will be discussed together. And through 'A State of Mind', the documentary about North Korea, we will discuss the nationalization of the public and the daily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North Korea.

And in the second lecture, we will deal with the historical fact and historical fiction of the Battle of Bocheonbo. It is time to briefly deal with the history of North Korea and underst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how North Korea became communist and how Kim Il Sung came to power among many political forces. In particular, while discussing the Battle of Bocheonbo, which brought Kim Il Sung fame during the anti-Japanese revolution, we will interpret the painting 'Touchlight of Pochonbo' and 'Victorious Battle of Pochonbo Memorial Tower' together.

In the third lecture, I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olitics by discussing the official ruling ideology of North Korea, the Unique Ideological System of Juche Ideology and the Aesthetic Symmetric Structure'.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formation process and contents of the Juche Ideology, and the meaning of the aesthetically symmetric structure revealed in 'the Tower of Juche Ideology Ideology.'

In the fourth lecture, we will deal with 'the power of the face revealed in the portrait of Kim Il Sung in the theocracy of North Korea.'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can be said to have theocratic characteristics. We are going to discuss it centering on 4 portraits of Kim Il Sung. Thinking about the reason for using a portrait picture of a leader rather than a picture of the leader's face that is commonly used, and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e portrait as an icon, it is expected that you will come face to face with the transcendent and deified leader Kim Il Sung.

In the fifth lecture, we will talk about 'the similarity and differentiation of the images of Kim Jong-il and Kim Il Sung of hereditary power.' North Korea is a unique country where power is hereditary. In the process of passing power from Kim Il-sung to Kim Jong Il, how were the images of these leaders visualized? On the one hand, Kim Jong-il would have wanted to inherit the political legitimacy of his father, Kim Il Sung, and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he wanted to create his own leadership style. Let's take a look at such contents with pictures of North Korea.

In the sixth lecture, with the theme of 'The Illusory Body of the North Korean People as Sociopolitical Organisms', I plan to look at how North Korean people are visually reproduced in North Korea. In general, we will also discuss the 'two bodies of the king', which divides the body of a king or leader into a natural body and a political body. North Korea emphasizes that people have two bodies. In other words, Juche, the ruling ideology of North Korea, divides people's life into 'physical life' and 'socio-political life'. Therefore, it seems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people's socio-political organism. To this end, let's compare North Korea's painting 'The Melters of the Past' with the Soviet Union's 'Volga River Workers.'

In the seventh lecture, under the theme of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ryeong(Supreme Leader) and the people in the principle of creating the image of the leader', we will look into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and people is being reproduced on a visual icon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the principle of creating the image of the Suryeong(Supreme Leader) is stipulated. Centered on that,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of the painting, that is, the arrangement or location, and the brightness, size, color, etc.,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the people can be revealed. Let's meet those details.

In the eighth lecture, we will discuss 'Juche realism, mythical-surrealistic realism'. North Korea calls their art Juche Realism. At first, it was influenced by socialist realism that was developed in the Soviet Union. As it combines with the Juche Ideology, it is emphasized as Juche realism. However, it is discovered that the word 'realism', has mythical and surreal contents, unlik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rm. So, I think North Korean art should actually be called 'mythical-surrealistic realism'. I will discuss these discussions by comparing the icons of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In the ninth lecture, with the theme of 'Chollima-Mallima Speed Battle: North Korea's Economy and People's Mobilization'. Centering on the North Korean propaganda painting 'Did Comrade Ride the Chollima?', I plan to see various propaganda paintings about the Chollima during the Kim Il Sung era and the Mallima speed battle up to Kim Jong-un recently, in other words, North Korean posters. The propaganda painting 'Did comrade ride the Chollima?' is a 1958 propaganda painting. Since it is constantly being renewed and used to this day, I plan to look at North Korea's economy and people's mobilization centered on this propaganda painting. Here we discuss together Althusser's concepts of the ideological subject.

And in the last tenth lecture, we will meet North Korean landscape paintings under the theme of 'Political landscape painting, a political device for memory and oblivion'. When we generally think of landscape painting, we think of it as a fine art that is far from political. Landscape painting in North Korea can be read as a political landscape painting in itself. Here, I plan to analyze and interpret various landscape paintings such as Mt. Baekdu, the sacred place of revolution in North Korea, slogan tree, red sky and bridge, waves, etc.

However, today is the first class, so in this lectur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basics to understand North Korea first. First, I introduced the overall lecture on politics and society in North Korea. I'm going to talk about the image of North Korea that we feel while looking at North Korea. In fact, North Korea is not an open society, so there is not much information known to the outside world, so the image we have of North Korea is very limited and we have a strong impression about one of them.

Let's talk about such an image of North Korea. And our perspective on North Korea has a dual aspect, just like the lyrics of the song, "You are near and far away." We will also discuss that dual perspective.

Third, let me outl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ystem by dividing it in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Since we will be studying North Korea in the future, this is an effort to introduce basic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to understand North Korea beforehand.

Fourth, we will look at various debates about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n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say in one wor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re such and such. This is because the North Korean system has universal characteristics in some ways, but also has several special characteristics. It seems that depending on which aspect is emphasize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ay North Korea is viewed. Let's take a look at the various debates about it.

Fifth, we will compare the totalitarian political system and the North Korean system. First, let's look at Friedrich-Brzezinski's totalitarianism and Hannah Arendt's totalitarianism, which discuss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And let's briefly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otalitarianism and the North Korean system.

Sixth,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in which North Korea's totalitarian characteristics are revealed is group gymnastics. Through the documentary 'A State of Mind' directed by Daniel Gordon, we will explain the meaning of collective performances such as North Korea's collective gymnastics, and examine the resulting nationalization process and people's daily lives. This is the end of this session.

Nationalization of the Public :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1-2 Viewpoint toward North Korea

We will start from where we left last session. Everyone, what images come to your mind when you hear 'North Korea'? In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the images that come to mind when heard 'North Korea'. For example, when you think of North Korea, do you think of Kim Jong Un, nuclear weapons, famine, or group performances in perfect order? When you think of these keywords, you may inadvertently think that North Korea is a very strange or eccentric country. I think it's because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social aspec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countries, so you feel a sense of heterogeneity. At the same time, I think about how much we and neighboring countries know about North Korea.

If I summarize and organize the images of North Korea, I think there are these images. 'North Korea is a strange country.' So, North Korea has total control over its people and is a completely monolithic society. The North Korean people are loyal to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And it is a dangerous and aggressive armed state. North Korea is a criminal state. North Korea is making its people starve. North Korea is a country that does not change. In fact, this is an image of North Korea or a certain stereotype, or what he calls an 'obvious cliché', extracted from the book 'Jangmadang and Military-first Politics' written by Hazel Smith. Here, the author proposes to rethink North Korea beyond these obvious clichés. There is also such an expectation that if you go beyond the obvious image of North Korea, you will start to see a different North Korea. So, first of all, this is the content I brought to talk about what kind of image there will be if you look at North Korea with such an obvious gaze. Not all of these things are wrong, and not all of them are right. However, some of them may be valid in some way, and some may be misunderstandings or stereotypes, and we will examine them one by one.

First of all, we believe that 'North Korea is completely controlling the people and is a completely monolithic society'. I think we can think that way enough when we see group performances in North Korea, which we often see on TV or in videos. This photo is a group performance showing North Korea's collective gymnastics. North Korea's group performances, mass games, and group card sections often show surprisingly perfect appearances that surprise the world. It makes us think how much practice all these people had to do to get to this. In the second half of this lecture, we will discuss a documentary called 'A State of Mind' that shows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actual mass game in North Korea. Let's learn more about this mass game through the video. These features seem to make you think that North Korea is a completely monolithic society with total control over its people'.

Second, we think that 'North Korean people are loyal to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You can see people walking down below, and there are cars standing there. You can see people walking and cars standing below, and if you compare it with that, you can guess the size of these portraits is staggering. We can also feel the power of the North Korean leader from this overwhelming size. A detailed analysis of these portrait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in a later lecture.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se enormous portraits are being displayed by North Korea, and there are not many opportunities to actually look into the opinions of North Korean people. However, in North Korea, there is still a paradigm of praise and glory for Suryeong(Supreme Leader), along with constant ideological education for the great leader Kim Il Sung, General Kim Jong Il, and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 And at the same time, we must remember that there are many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trying to escape North Korea.

Third, we think that North Korea is a dangerous and aggressive military state. In fact, North Korea launches ICBMs from time to time, causing threatening tension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round the world. And North Korea even gives fear of nuclear weapons, so I think it can be considered very dangerous and aggressive in terms of security.

This photo is from the music video which is created with the videos of launching an ICBM distributed by North Korea. I would like you to see the North Korean music video that includes this scene. It is a video that has received more attention because the existing North Korea has not been publicly disclosed like this. If you look at this video, it shows a very spectacular scene of launching an ICBM, like a scene from a movie of Marvel or 'Top Gun', or a scene from a flashy advertisement. It reminds us of the opening scene of 'Top Gun' for a moment. In the opening scene, which shows the aircraft taking off and landing from an aircraft carrier, the control officers moving very busy on the flight deck are spectacular with a sense of tension. Likewise, you can see scenes from North Korea that are very rhythmic, such as the movement of the car loaded with the ICBM, the dazzling camera angle following the movement, the appearance of Kim Jong Un wearing sunglasses and a leather jacket, the way he looks at his watch, hand gestures giving instructions, and the repeated unison of soldiers executing them. However, if there is one regrettable thing, it is that the main character is Kim Jong-un, not Tom Cruise. And the directing of the camera and the sense of speed are still not as good as the movies.

However, these spectacular attempts make me think that North Korea is really a theater country. The concept of this theater state will also be explained in the following discussion of 'various controversies about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yway, this video is also showing off that North Korea now has great confidence in the armed forces. However, unlike the spectacular video, the act of actually launching ICBMs or missiles from time to time or conducting a nuclear test causes great tension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gives them anxiety and fear about security. However,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use of force is also a means to increase diplomatic bargaining power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Anyway, it is clear that it is a factor that makes us seriously think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urth, we also think that 'North Korea is a criminal country'. The assassination of Kim Jong Nam, the eldest son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and older brother of Kim Jong Un, with a chemical weapon, VX solution in 2017, and the execution of Jang Seong-taek, former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uncle of Kim Jong Un, etc. are factors that makes North Korea a criminal state from the outside.

For example, in the case of Jang Song-thaek's execution, North Korea held a special military tribunal held by the State Security Agency on December 12, 2013, sentenced Jang to death for 'a heinous crime conspiring to overthrow the state' and immediately executed it. By publicizing the image of Jang Seong-taek standing in court with his hands tied in ropes and being held captive by State Security Department agent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North Korea showed the reign of terror by this one single photo. It can be assumed that this scene aroused great fear among high-ranking officials in North Korea. North Korea emphasizes the Juche Ideology of 'people-centered', and Kim Il Sung insisted 'Yiminwecheon', regarding the people as heavenly. In explaining his ruling ideology, Kim Jong Un says that the great Kim Il-sungism-Kimjongilism is, in essence, the people-first principle. In other words, he is declaring the people-first principle as his method of governance. It is not easy to think that the people-first principle and the reign of terror are compatible. However, North Korea is shouting to the official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Serve with all your might for the sake of the people!" Myeolsabokmu(Selfless service)' literally means 'exchanging one's life for the happiness of the people.'

Let me read the North Korean literature on this. The main obstacle to correcting the officials' business methods and styles was overcoming the abuse of power and bureaucracy. Abuse of power and bureaucracy are the most harmful ideological toxins and basic obstacles that separate the party from the masses. Power and bureaucracy are not simply problems of the character or work of officials, but problems of ideology. Exercising power and bureaucracy not only causes officials to lose the public's trust and puts a stain on political life, but also damages the authority of the party, blurs the image of socialism, and ultimately ruins the revolution and construction of the party. Jang Seong-taek's crime is that he pretended to support the party and the Suryeong(Supreme Leader) in front of him, and then turned around and engaged in sectarian behavior.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he committed acts of betrayal by selling the country's precious resources at a bargain price, and even held responsibility for the currency reform in 2009, bringing great economic confusion to North Korea and greatly hindering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In North Korea's eyes, these actions stem from the power that Jang Song-thaek possesses, from his power and bureaucracy, and become "the most harmful ideological poison that separates the party from the masses." Therefore, from the cadre's point of view, loyalty to the Party and the Suryeong(Supreme Leader) and selfless service to the people is the people-first principle. From the people's point of view, this should really be regarded as heavenly. But I wonder what people actually think.

Fifth, we believe, 'North Korea is starving its people.' In fact, from about 1994 to around 1999, North Korea went through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and the economic crisis even brought the North Korean system to the brink of collapse.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500,000 and 600,000 people starved to death during this time. Of course, it can be seen that it has improved a little now, but North Korea still suffered from the corona pandemic and is still spending huge military expenditures, so the life of ordinary people is still considered very difficult. In particular, after the corona pandemic, North Korea, which took a strong containment policy, reported that the food crisis was further intensified. As for us, we hope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will not starve.

Sixth,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that North Korea is a country that does not change. Actually, North Korea is not a rapidly changing society. It still emphasizes the Juche Ideology of the Kim Il Sung era and maintains the basic political and social framework of that era. However, the present North Korean society is also changing very much. One reason was that the rationing system became difficult for economic reasons, but a market economy system centered on the 'Jangmadang' is also taking its place. Like many other countrie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North Korea can be said to be experiencing a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While a fundamentally socialist system remains in the political philosophy and rhetoric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been irreversibly transformed into a market economy and is undergoing change. And as a result, various changes are being detected in daily life in North Korea. So, it seems necessary to take a closer look at North Korea's politics and society.

Then, what about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o us, North Korea was a country that shared the same history, culture and language. However, while living for a long time as beings with different political entities due to division and war, on the one hand, they are the same comrades in terms of ethnicity, and on the other, they are also objects of caution from a security perspective. In this way, our view of North Korea is ambivalent. So,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duality i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One is to perceive North Korea as a party to form a national community with us, and the other is to perceive North Korea as a threat to our security and right to live. First of all, from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North Korea as a partner forming a national community, the two Koreas are a homogenous nation, and have common histor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ame history, culture, and lifestyle. And as the Cold War ended with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an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as created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the inter-Korean summit, efforts were made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mote the Sunshine Policy, creating an atmosphere in which South and North Korea pursue mutual recogni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The existing object of exclusion and confrontation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object of recognition and coexistence, and exchanges have begun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and sports. Private level North Korea support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projects were also carried out. And although it was frustrated, we negotiated denuclearization through North Korea-U.S. summits and inter-Korean summits, and as a result, we made efforts to discus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gether.

However, there is definitely a point of view that North Korea is a threat to our right to live. After the division, South and North Korea experienced the national tragedy of the Korean War, and since then, military clashes, conflicts, and tensions have occurred from time to time, such as the Yeonpyeong Island shelling provocation, the Battle of Yeonpyeong, and the attack on the Cheonan warship. This is because it continues to lead to missile provocations and nuclear threats. However, if we look at North Korea from only one perspective,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 long-term and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f only the security perspective is emphasized,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ignoring the security perspective will inevitably cause confusion.

Realistically, therefore, we need a balanced awareness of North Korea's dual nature. So, before studying North Korea, we must first recognize North Korea as an opponent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nd we need to make efforts to objectively know and understand North Korea.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must be judged based on universal values.

Among these, it is necessary to know North Korea objectively for the following reasons. In the reality of North Korea that we can recognize, there is North Korea in the official world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im for and the reality of North Korea that North Koreans actually face. North Korea reported by official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which function as propaganda tools of the North Korean regime, may not be the same as the reality of North Korea, so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North Korea through this.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image of North Korea shown in the official media of North Korea, efforts should be made to objectively grasp the real life of North Korean residents. This content is quoted from the contents written in 'Understanding North Korea', which is issued every year by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So, North Korea is saying that they have an external 'propaganda North Korea', and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internal 'actual North Korea'. That's why it is emphasizing that when we study North Korea, we should try to know about the actual North Korea.

However, this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lecture we are studying tries to approach it backwards. In other words, while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 data of 'propaganda North Korea', we want to look inside North Korea, 'real North Korea'. So, specifically,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attempt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ual North Korean regime with visual icons such as paintings, photographs, statues, and monuments that have been used as tools for political propaganda in North Korea. This is the end of this session.

Nationalization of the Public :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1-3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ystem

We will start from where we left last session. For a general understanding of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I would like to outl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ystem first. The North Korean system has both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unique to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 state-led management system centering on the planned economy and the party-dominant system show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At the same time, the Suryeong(Supreme Leader)-centered system and power succession from Kim Il Sung to Kim Jong Il and Kim Jong Un are very unique political characteristics unique to North Korea.

First of all, North Korea is a one-party proletarian class dictatorship, that is, a one-party ruling system centered on the Labor Party. This means that the one party in power is the source of power with the highest status and authority, and dominates the country and society by ranking higher than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all organs of the state and society are under the leadership and control of the Party, and all policies are promot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Party.

The North Korean regime is politically a Suryeong(Supreme Leader) system based on the Juche Ideology as the ruling ideology. In the early days, North Korea's ruling ideology, like other socialist countries, was 'Marxism-Leninism. However, at the 6th Party Congress in October 1980, the party constitution established "Kim Il Sung's Juche ideology" as the official guiding ideology of the party. We will discuss this Juche Ideology in more detail in the next lecture. And in the 'Kim Il Sung Constitution' amended in April 2009, the 'Songun(Military-first) idea', which embodies Juche Ideology, was added as the ruling ideology, and this ruling ideology became the basis of the North Korean-style Suryeong(Supreme Leader) system. And then, at the 4th Party Representatives Meeting in April 2012, claiming that Kim Il-sungism-Kimjongilism was the eternal guiding ideolog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Article 3 of the 'Kimilsung-Kimjongil Constitution' amended in April 2019, North Korea replaced the Juche Ideology and the military-first ideology, revealing Kim Il-sungism-Kimjongilism as the only guiding principle for state construction and activities. So, based on Kim Il Sung's Juche Ideology, it can be said that Kim Jong Il's Songun ideology and Kim Jong-un's Kim Il-sungism-Kimjongilism are the ruling ideologies of North Korea.

North Korea has an absolute one-man rule structure centered on the suryong, in which Suryeong(Supreme Leader) reigns as the center over the party-military-state system. Suryeong(Supreme Leader) is the nucleus of leadership, and the party is a totalitarian dictatorship governed under the sole leadership of the leader as a political organization centered on Suryeong(Supreme Leader). The logic of Suryeong(Supreme Leader)-centered system is revealed in 'Ten Principles for Establishing the Party's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published in 1974 and in the paper "On Juche Ideology" published by Kim Jong Il in 1982. The title of Suryeong(Supreme Leader) is a title limited only to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In the <Kim Il Sung-Kim Jong Il Constitution> amended in 2016, both Kim Il Sung and Kim Jong Il were marked as 'eternal Suryeong(Supreme Leader)s,' and at the 7th Party Congress in May 2016, Kim Jong Un was given the title of 'great leader' and given the position of Suryeong(Supreme Leader). In the amended <Kim Il-Sung-Kim Jong-Il Constitution> in April 2019,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was given the authority to 'represent the country.' At the 8th Party Congress held in January 2021, Kim Jong Un was appointed a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given authority as the supreme leader.

North Korea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a theocracy in that it firmly establishes a one-person ruling system that leads to hereditary succession of father and son and holds the leader sacred. These political regimes have political characteristics that enable mass mobilization, either by force or by consent.

Like other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basically maintains the concept of socialist ownership in which the state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own the means of production. It is a planned economy in which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However, even in North Korea, private ownership is recognized, albeit on a limited basis. A centralized command economy, i.e. an economy that is basically centralized and operates according to plan under the dire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in fact, North Korea's centralized planned management system no longer operates normally after the 1990s due to the economic crisis. So, North Korea is solving problems by making their own plans in the relevant institutions, factories, and enterprises, and it can be said that the residents are living by relying on markets that have emerged spontaneously, such as Jangmadang. The Socialist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2014 by combining various measures that had been piloted so far. The key content of this system is to increase the autonomy of factories and enterprises and largely transfer planning and management authority to institutions, factorie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North Korea is a system that partially introduces market economic elements into a centralized planned economy system, which can be said that it is a dual structure in which the planned economy and the market coexist.

Let's look at the social characteristics as well. The social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system is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This is because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f 'one for all, all for one'. North Korea's mass game, which we will talk about today, will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North Korea's collectivism visually.

And in North Korea, there are two families. One is an ordinary family centered on blood relatives, and the other is a large socialist family with Suryeong(Supreme Leader) as the parent. Here, it is said that Suryeong(Supreme Leader) is the father, and the party is the Motherly Party. In this way, the "large socialist family system" with Suryeong(Supreme Leader) as the parent serves as a logic to justify unconditional loyalty and worship to Suryeong(Supreme Leader). This is the end of the session.

Nationalization of the Public :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1-4

Arguments on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We will start from where we left last session.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re is much debate about defining the political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For example, there are discussions that variously define North Korea as a totalitarian state, a theocracy state, a Confucian state, a family state, a guerrilla state, a regular military state, a Suryeong(Supreme Leader)-system state, and a theater state. Let's briefly introduce these personality rules.

First, it views North Korea as a totalitarian state. We will discuss this in detail in the next time difference.

Second, the absolute power of the North Korean leader is superhuman, and North Korea is a theocracy that regards Kim Il Sung as sacred.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 source of all authority is attributed to the greatness of Kim Il Sung. When the authority to rule is derived from the superhuman greatness of the natural person, that is, from divinity, without linking it to organization, position, or support of the people, the political system becomes a theocracy. In this respect, the North Korean system is different from other totalitarian political systems of the 20th century, and rather resembles the theocracy of the era of imperial unity or the absolute monarchy based on the divine right of kings.' That's the point of view. Regarding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theocracy, I will discuss how the leader has divine and transcendental power while examining various visual icons of North Korea in the following lecture,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Thirdly, Bruce Cummings describes North Korea as a Confucian country. Confucianism aims to establish a system of feudal warlords or centralized kingship. Therefore, Confucius said to his disciple who asked the essence of politics, "The king should be like a king, the minister should be like a servant, the father should be like a father, and the children should be like children." In other words, this view is the view that Confucianism strengthens the military-subject system and the centralized royal power system, and that such characteristics are the main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Fourth, Armstrong, who studied North Korea's early revolutionary politics, sees North Korea as a country that combines Confucian familism and Stalinism.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collective filial piety centered on Kim Il Sung. Or,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supreme leader is like a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s, It seems appropriate to call the modern communist North Korea a one-family state. The role of Suryeong(Supreme Leader) seems to be the same as that of a head of a family in a traditional society. He exercises absolute authority and defines North Korea as a family state, saying that he is the source of all wisdom in national affairs and that the destiny of a nation resembles that of a family.

Fifth, Haruki Wada defined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s a 'guerrilla state' in his important study on the political history of North Korea, 『North Korea: The Present of a Guerrilla State』. Haruki Wada explains tha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and the modeling of the anti-Japanese guerrillas, a new national system emerged as the Juche ideology was established. A country in which Kim Il Sung is the commander of the guerrilla army and all the people are members of the guerrilla army can be called a guerrilla state.'

Furthermore, Kwon Heon-Ik and Jeong Byeong-Ho also see that the concept of a guerrilla state and a family state are closely related. Kwon Hun-Ik and Jeong Byung-Ho defined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s a 'guerrilla state' in an important study on North Korean political history by Haruki Wada. Also, while the activities of the partisans are traditional against strong external forces, their inner bonds are described as resembling a family organization characterized by strong values of paternal love and filial piety. Family friendly relations in North Korea's connections are a key factor in revolutionary activities and, by extension, stand out as a fundamental virtue of a revolutionary nation.'

However, after the death of Kim Il Sung, Wada Haruki revised the concept of a guerrilla state and even corrected it to a 'regular military state.' He reported that in order to capture the system change after Kim Il Sung's death, that is, the new regime of Kim Jong-il, it should be seen as a 'regular military state' rather than a guerrilla state. The book 『North Korea: The Present of a Guerrilla State』 written in 1998 was retitled 『North Korea: From a Guerilla State to a Regular Military State』 in 2002.

They also describe North Korea as a Suryeong(Supreme Leader) system. It refers to an orderly organizational system that works as one person under the leadership of Suryeong(Supreme Leader) and a system that guarantees discipline through systems and ideologies. In other words, it is regulated as Suryeong(Supreme Leader) system that puts the suryong on top of the Soviet-style party-state system.

Also, the discussion of defining North Korea as a theater state is very interesting. Haruki Wada says this. The guerrilla state, which considers Kim Il Sung as the commander of the guerrilla army and all the people as members of the guerrilla army, is what Clifford Geertz calls a 'theater state.' He called the theater state a state in which power is displayed through ritual. North Korea's guerrilla state has become, as he says, a theater state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modern times. The guerrilla state, as a theater state, needed designers and directors. Suryeong(Supreme Leader)'s son, Kim Jong Il, took on that role. Haruki Wada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theater state' by citing anthropologist Clifford Geertz's classic study of ritualistic politics and the spectacle of power in Indonesia. He presented this concept as a paradigm for understanding the political process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Il era. Kwon Hun-Ik and Jung Byeong-Ho brought the concept of theater state by Haruki Wada, mainly examining public art works or large-scale spectacles in North Korea, and exploring North Korea's national character of theater, and said as follows. "Studies on the politics of revolutionary socialist countries have often extended their field of inquiry to various techniques of popular politics, such as songs, plays and films, mass rallies and mass events, and many other similar tools of ideology and propaganda. In North Korea, these various forms of propaganda are broadly referred to as 'revolutionary art' and their dissemination methods have been raised to a high level." "It is the birth of a powerful modern theater nation aimed at resisting the natural culling of charismatic power through artificial art politics." This concept of a theater state seems very appropriate to explain North Korea's visual and spectacular propaganda.

As such, there are studies that define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in a variety of ways. This also means that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implies complex elements that cannot be defined as one yet. Overall, in this lecture, among the various debates about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North Korea has theocratic characteristics along with totalitarian characteristics, and we will examine the discussions on it one by one. This is the end of this session.

Nationalization of the Public :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1-5

Totalitarian Political System and North Korean System

We will start from where we left last session. To summarize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North Korea is a socialist country, a one-party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and Suryeong(Supreme Leader) system centered on one Suryeong(Supreme Leader). However, we can compare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with the totalitarian system.

First of all, Friedrich-Brzezinski, in his book,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published in 1956,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talitarian despotic political system. This 'model by Friedrich-Brzezinski' also represents the social scientific conceptualization of totalitarianism in the Cold War. They point out six characteristics of 'totalitarian dictatorship'.

First is the existence of a formal ideology. Totalitarian official ideologies were characterized by a vision of a millennium-perfect world while radically rejecting established society.

Second, there is usually a single popular party led by a single dictator. These party members are passionately committed to the official ideology, and the party either dominates or is inextricably intertwined with the government bureaucracy.

Third, it is said that it is a terror system by the secret police. This device supports the party and at the same time serves as a watchdog on the part of the leader. This terror is exercised not only against the regime's enemies, but also against certain arbitrary classes.

Fourth, almost complete monopoly and control over all media outlets.

Fifth, almost complete monopoly of all armed means of combat.

Sixth, it follows a centralized command and control system for the entire economy. This discussion was also a political concept applied to Mussolini's regime in Italy, Hitler's Nazism in Germany, and Stalin's Soviet Union. This concept emphasized that communism and fascism have similarities and was also used as a conceptual tool for the Cold War to criticize Soviet communism and communist society in general. These social scientific conceptions of totalitarianism contain a fundamental criticism of the Marxist interpretation at the time, which tended to understand fascism as a product of capitalism.

Since Friedrich and Brzezinski saw totalitarianism and capitalism as fundamentally distinct, they understood that totalitarianism had more in common with communism than with capitalism. They defined totalitarianism by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the political process and means by which power and terror are exercised.

However,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described in Hannah Arendt's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published in 1951, goes further than the existing concept and emphasizes the anthropological element. In other words, while the existing concept of totalitarianism in social sciences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means of total terrorism exercised by totalitarian state power, in addition to such institutional devices, Arendt can be seen as paying attention to the mode of existence of human nature in the conditions of total terrorism by a totalitarian state.

Arendt's humanity is related to the inner elements of the human spirit, such as subjectivity, spontaneity, ability to think, individuality, and collective solidarity. And the totalitarianism that Arendt speaks of can be called 'total domination' or 'total terror'. This total domination emphasizes the aspect of 'loss of humanity' that is brought about as a result of that domination rather than thorough domination. And Arendt argues that the essential function and effect of total terrorism was to destroy human diversity and make all human beings one. That is, the deprivation of individuality realizes the uniformity of all human beings and establishes 'human redundancy'.

The 5 key elements of Hannah Arendt's concept of totalitarianism, organized by Elizabeth Young Bruehl, who wrote the biography of Arendt, are as follows. First, while presenting a holistic explanation of the world and history, there is an ideology that defines a superior nation and an 'internal enemy'. Second, total terrorism. Nazi concentration camps and Soviet labor camps are typical. Third, it destroys natural human relationships. This includes breaking up families and banning marriages between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as destroying all private areas between humans. Fourth, it is governed by bureaucracy. This is the phenomenon of trusting the secret police rather than the military as a means of governance beyond simple bureaucracy. Fifth, it advocates a kind of 'absolute sovereignty' and justifies the imperialist ideology.

However, if discussions such as the loss of collective solidarity between people, the destruction of human individuality, and human redundancy are added here, it seems that Arendt's concept of totalitarianism can be further expanded and understood. In other words, in the existing concept of totalitarianism, the anthropological consequences of total terrorism must be added. This is not simply to judge whether or not totalitarianism is a form of terrorism by the state power that pursues totalitarianism. Rather, it means that she pays attention to whether it has gone as far as destroying people's humanity to the end. Different scholars, or before and after the Cold War, see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slightl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riod. Arendt's case emphasizes not only the institutional device of state power and terrorism, but also the mode of existence of humanity. It seems that Arendt's deep will, emphasizing the need to fiercely look into the loss of fundamental humanity through totalitarianism, that is, the disastrous human consequences.

However, from the standpoint of looking into North Korea, it is impossible to meet the people of North Korea in reality, so I think that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research to look into the existence of North Korean people's humanity and even the loss of that humanity. So, although it is criticized that it can be a conceptual weapon of the Cold War that criticizes communism,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ompare and examine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focusing on the six common characteristics of totalitarianism identified by Friedrich and Brzezinski. As mentioned before, they say that among the dictatorships that oppress the people, the worst dictatorship is called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they see Hitler's Nazi Party and Stalin's communist rule as examples of totalitarian dictatorship. If we compare the six conditions of Friedrich and Brzezinski's totalitarian dictatorship with the North Korean system, we can find that they are very similar. If you put it in a simple table, I think it can be explained as follows.

In North Korea, the Juche ideology exists as an official ideology that governs all aspects of human life,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exists, where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are hereditarily ruled by one person. Furthermore, the Party and the secret police, for example,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s terrorism system, mass media monopoly to the extent that even radio and TV channels are fixed, and armed force monopoly and central control economy exist. If you look at these characteristics, North Korea can be seen as a typical totalitarian regime that has all six characteristics suggested by Friedrich and Brzezinski. However, while North Korea has these characteristics of totalitarianism, at the same time it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theocracy in which one leader is sacred and his unlimited power is recognized.

In this lecture, we talk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otalitarianism, but in the next lecture, we will als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theocracy. This is the end of this session.

Nationalization of the Public :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1-6 Nationalization of the Public: Documentary

We will start from where we left last session. I said that North Korea has characteristics of a totalitarian state. How did North Korea make it possible to nationalize the masses? In other words, how did the people of North Korea become the people of Kim Il Sung?

First, I'd like to introduce a documentary about North Korea that you can ponder on. It is a 2005 documentary called 'A State of Mind' directed by Daniel Gordon from England. After 'The Game of Their Lives' in 2002, Daniel Gordon directed 'A state of Mind' as his second film, and 'Crossing the Line' in 2006. The Kim Jong Il regime, who had a favorable relationship with director Gordon through 'The Game of Their Lives', allowed him to interview the two girls and their families preparing for the mass game, and even film parts of the game. and even film parts of the game. So, in this film, two North Korean girls, Hyeon-soon and Song-yeon, actually prepare for the eight-month mass game from February to September 2003, showing the process.

Regarding the collectivist closedness of the North Korean system, whi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the eyes of the West, which values individual values above all else, Daniel Gordon doesn't try to understand unconditionally with a critical gaze, and he doesn't try to understand it, but he's just choosing a way to show it. Instead, he captured without filtering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praising and worrying about their country and leader. As a result, it seems that he provides an opportunity to dispel unconditional prejudice and think objectively about people living in this strange country. If you have time, I hope you all take a look.

Then, before discussing Daniel Gordon's documentary 'A State of Mind' in earnest, let's first explain North Korea's collective gymnastics for better understanding. After North Korea's collective gymnastics first appeared in 1947 under the direction of Kim Il Sung, the 'Collective Gymnastics Creation Group' wa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Sports Guidance Committee in November 1971, and the 'Collective Gymnastics Creation Department' was created at the Pyongyang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As a result, North Korea's unique 'collective gymnastics' was created for the purpose of showing off its regime. According to North Korea's 'Literature and Arts Dictionary', collective gymnastics is a comprehensive physical art that encompasses a large group, and it is described as one of the vast scale gymnastics art forms in which a large number of people participate, with gymnastics and dance movements as the basic means of expression.

Its content states, 'The proud victorious journey of our people and the achievements achieved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military, are reflected in an epic form on a historical canvas.' In North Korea, this 'collective gymnastics' is appropriately used as a great means of political education. In other words, they are performing large-scale group gymnastics with 50,000 to 100,000 people at political events or national anniversaries. When a group gymnastics performance is decided, it is practiced over a period of about 3 to 6 months, and mainly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downtown Pyongyang are mobilized. During this period, large and small items must be prepared, and after being mobilized, you must practice repeatedly without a break. In this process, students with weak bodies are exhausted, but if they make a mistake, they will be punished by the instructor immediately, so they cannot be vigilant for a moment.

The most notable thing in North Korea's 'group gymnastics' performances is the 'card section'. In North Korea, it is called 'Baekyongdae'. Various pictures, letters, and three-dimensional and rhythmic shapes are used to explain ideas and themes that gymnastics and music cannot express or are difficult to express. The participants who are mobilized for this Baekyongdae are also young students. North Korea's card section exudes admiration from the viewer for its size, instantaneous technology, and sophisticated and majestic scenes. However, the students who direct this movement must be nervous throughout the performance, not letting go of their minds while shedding blood and sweat.

North Korea's performing arts produce many performances with a strong assemblage nature based on the spirit of collectivism, and a mixture of various genres or large-scale performances at stadiums are constantly being developed. Created in 1999 under the direction of Kim Jong Il, 'Grand Gymnastics and Artistic Performance' is the largest of North Korea's performance forms. 100,000 actors appear annually and most of the large 150,000-seat stadium is used as a stage. Large-scale stadium performances created by combining existing collective gymnastics with new art performances, such as music, theater, dance, and acrobatics, are these large collective gymnastics and art performances.

In other words, this is a performance with enhanced artistry, such as a dance scene, solo singing and acting by professional artists, with a card section unfolding by the Baekyongdae along with group gymnastics. This large group gymnastics and art performance features North Korea's best professional artists, including the Bipada Opera Troupe, Mansudae Art Troupe, and Pyongyang Art Troupe, to strengthen artistic expression, and full-fledged stage equipment and lighting are used. In the past, collective gymnastics was part of the sports events supervised by the National Sports Guidance Committee, but these mass gymnastics and art performances are said to be directly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Massive gymnastics and art performances, which debuted in 2000 at the <Invincible Chosun Workers' Party>, became established as a genre in North Korea through the 'Arirang' performance in 2002. North Korea's mass games are actually a great synthesis of gymnastics and music.

However, as much as the national gymnastics was emphasized in the era of Hitler's totalitarianism in Germany in the past, it is also inherent in the political nature that brings about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Collectivism, which is emphasized only through words or education, is inevitably different from collectivism, which is directly learned and learned through the body.

Let me briefly quote from the book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by George Mosse, who studied Hitler's totalitarianism in Germany. When a nation expresses itself, it is the national monuments and public festivals that provide the myths and symbols that make up the appropriate national rites. But they did not exist separately.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some group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serving and expanding the new secular religion. The public festival in Germany at the time referred to here meant the activities of the gymnastics club, the men's choir, and the shooting club. Since we're talking about collective gymnastics in North Korea, here's a little more quotation about discussion of gymnastics by George Mosse: 'Patriotic love through gymnastics'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teaching and life must be unified as one.' The unity of body and spirit was the most important lesson. The gymnastics club saw themselves as a catalyst for national revival. The festival was believed to be crucial to the operation of the patriotic spirit. Actions and symbols were important in maintaining continuity among the crowd. For such a rite signified a sacred act, and was to transform a disorderly crowd into a more or less disciplined mass. The festival of gymnastics club members consistently combined physical training with national symbols and rituals. It was a kind of hall of worship. It became a specific space for the National Gymnastics Ceremony.

There must have been several factors that made German totalitarianism possible. Looking at documentaries such as Hitler's 'Triumph of the Will', the question is always how the public at this time was able to support Hitler like that. But George Mosse, asking, "How did the German masses become Hitler's subjects?" said that in addition to these gymnastics clubs, shooting clubs, and men's choirs, various festivals, plays, movies, choirs, operas, mass games, sports, mass competitions, lighting, marches, national ceremonies, statues, monuments, etc. are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made the public's nationalization possible. Among them, love for one's country through gymnastics is the unification of teaching and life, and the unification of body and spirit through gymnastics is the most important lesson.

The same would be true of North Korea. The mass game in North Korea can be said to be a spectacular collective art that best expresses the ideal of collectivism and totalitarianism, 'one for all'. Through this process, the people believe that they will achieve unity of body and spirit and become a 'true communist type of human being'.

The documentary 'A state of Mind' shows the entire process, from the basic practice stage of North Korea's mass game preparations to the final performance scene. The two girls participating as gymnasts in this mass game, 13-year-old Hyeon-soon and 11-year-old Song-yeon, are learning and learning while enduring harsh training even though they are still young. Even though we feel miserable that the practice area is a cold, rough cement floor, these girls are sweating. And on the day of the performance, the two girls are very disappointed that the great general was not able to attend the performance. It is also confirmed once again how much they respect their leader with dignity. However, this 'A State of Mind' shows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toward collectivism and totalitarianism, but in fact, it may be more focused on the fact that it gently reveals the daily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Hyun Soon and Song Yeon.

This documentary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look into the families of North Korean intellectuals living in Pyongyang. North Koreans, whose father is a professor, are still talking about the hardships of the Arduous March period when they were starving, and that blackout is common. Daniel Gordon calmly conveys the imperfections of North Korea through the mouth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re is only one national television broadcast in the home, and it shows the radio installed in each home. It is also introduced that the radio can be turned down, but not turned off. This reveals the totalitarian characteristic of having to listen to the voice of the state unilaterally, but also shows that it has become a very natural daily lif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It also shows the daily lives of the two girls during practice. Hyun Soon and Song Yeon, who show girls' mistakes, chatter and wishes, frustrations and joys, are also ordinary and dreamy girls we meet on a daily basis. Wherever you are, people's daily lives may remind you of the ordinary that there are things that are similar yet different. This documentary shows total control and a uniform society through mass games, and at the same time, it seems to make us think about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living in it.

Today, I started the lecture on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under the theme of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ystem'. We looked at the images that come to mind when I think of North Korea, and also shows the dual perspective that North Korea is the same people in South Korea,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presence that gives a sense of crisis about security. But that's why we need a process to know and understand North Korea properly.

So, in this lecture, I summariz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ystem, helping to understand North Korea in general, and looked at various debates that interpret and define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Some view North Korea as a totalitarian state, some view it as a theocracy, a Confucian state, a guerrilla state, etc. We looked at various discussions. Nevertheless, it seems difficult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ystem as such.

Among them, this lecture summarized the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and compared the totalitarian political system with the North Korean system. However, rather than defining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s a totalitarian state right away, it should be viewed as overlapping several characteristics such as a theocracy and a theater state. Nevertheless, through the documentary 'A State of Mind', which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North Korea's totalitarianism, we looked at the process of nationalization and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Then, it would be great if I could meet North Korea interestingly with you in the lecture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This is the end of today's lecture. Thank you.

讲义

大众的国民化 对朝鲜的理解和朝鲜体制的特性

1-1

《朝鲜的政治与社会》课程介绍

你好。我是讲授《朝鲜的政治和社会》的朴尚姬。

朝鲜对于我们来说真的是又近又远的。想一想韩国和朝鲜的物质距离，存在空间上最近的地方而且与我们同一民族同时具有同一语言，是非常亲密的存在。但是看不见的心理距离来说，感觉真的是又近又远的存在。因为政治理念、政治体制、经济体制、社会文化等与韩国很多东西都在不同的运作。

但是，为了民族共同体和韩半岛的和平，也需要与朝鲜紧密合作。所以了解朝鲜而理解朝鲜的过程是非常重要的事情。希望这《朝鲜的政治和社会》讲座能成为向导——给大家了解和理解又近又远的朝鲜。

但是，如果真要理解学习朝鲜的话，又会觉得困难、模糊、有点无聊。因为现在我们不能亲自去朝鲜看看和体验，所以非常抽象地感受到朝鲜的本质是什么。所以今后这讲座《朝鲜的政治和社会》不仅关于朝鲜的说明，而且主要介绍和解释朝鲜的图画、纪念物、照片等具体的视觉图像，并讨论关于朝鲜。我以为那因为是视觉的，所以朝鲜的实体会更容易理解。

现在第一堂课，所以整体地介绍这讲座，是组成为一共10个讲座。首先，今天的主题是大众的国民化、对朝鲜的理解和朝鲜体制的特性。一提到“朝鲜”就会想起什么样的形象，怎么看待朝鲜等，可以说这是为了理解朝鲜而准备的第一步。

还有我们要讨论"朝鲜政治体制的特性"。因为朝鲜的政治体制与韩国不同，非常陌生，在某些方面可能会觉得具有无法理解的政治结构。比如说，长期执政和权力的世袭、强有力的首领制和神话化领导人的新国家的特性、而且还会看到军队中心的游击队国家的样子或者壮观地显摆政治剧场国家的面貌。其中，还要讨论极权主义政治体制的性质。然后通过朝鲜纪录片《某个国家》，要讨论在朝鲜大众的国民化和朝鲜人民的日常生活。

还有，第2课要讲"普天堡战斗的历史事实和历史虚构"。虽然很短，我们来看朝鲜历史，朝鲜经过怎样的过程实现了共产化，在很多政治势力当中金日成怎样获得权力，为了了解历史脉络的时间。特别是讨论抗日革命时期给金日成带来名声的普天堡战斗，同时解释一下《普天堡的火炬》图片和《普天堡战役胜利纪念馆》。

第3课，希望理解朝鲜政治的特色——通过讨论朝鲜正式统治理念"主体思想唯一思想体制和美学对称结构"，我想讨论主体思想的形成过程和内容，以及《主体思想塔》中体现的美学对称结构的意义。

第4课，要讲课"神政政治朝鲜金日成肖像画中露出的脸面权力"。可以说，朝鲜的政治体制的特性之一具有神政政治特性。将讨论以金日成的4张肖像画为中心。要思考为什么使用领导人的肖像画，而不是通常使用的领导人的脸面照片，期待在解释肖像画的过程当中，能见到超越性和神化的金日成领导人的脸面。

第5课, 将讨论"世袭权力金正日-金日成的形象相似性和差别化"。朝鲜是世袭权力的独特国家。权力世袭从金日成到金正日的过程中, 这些领导人的形象是怎么被视觉化的呢? 金正日一方面想继承父亲金日成的政治正当性, 另一方面想打造属于自己的领导人风格。我们要这样的内容和朝鲜的图片一起来看。

第6课, 主题是“社会政治生命体朝鲜人民的虚幻的身体”我们要看朝鲜人民在朝鲜视觉上怎么再现的。一般来说, 会讨论国王或领导人的身体分为自然身体和政治身体的“国王的两个身体”“国王的两个身体”。朝鲜强调人民也有两个身体。因此, 在朝鲜支配意识形态的主体思想, 人民的生命分为“肉体生命”和“社会政治生命”。所以应该更加关注人民的社会政治生命体的视觉再现。为此, 我们要比较朝鲜的《过去的溶解工们》和苏联的《伏尔加河上的纤夫》的画。

第7课的主题是“首领形象创造原则领导者和人民的政治关系”我们要了解在朝鲜领导者和人民的关系在视觉上怎样再现的。在朝鲜规定了领袖形象创造原则。以这为中心, 根据图片的构图, 因此, 根据布局或位置以及亮度、大小、颜色等, 可以体现领导人和人民的政治关系, 我们要看看这些内容。

第8课, 我们要讨论“主体现实主义神化的-超现实主义”。朝鲜称自己的艺术为主体现实主义。最初是在苏联进行的社会主义现实主义影响下开始的。这结合与主体思想, 强调主体现实主义。但是, 这现实主义与术语的原意不同, 发现具有神化的和超现实性内容。因此, 朝鲜美术应该说实际上“神化的-超现实主义的现实主义”。通过比较苏联和朝鲜的图像我们要讨论。

第9课，主题是“千里马·万里马速度战朝鲜的经济和人民的动员”朝鲜的宣传画《伙伴骑了千里马吗？》以这部作品为中心，我们要看看金日成时期的千里马和最近金正恩的万里马速度战的各种宣传画，也就是朝鲜的海报。《伙伴骑了千里马吗？》是1958年的宣传画。因为到现在为止还在不断更新和利用，所以以宣传画为中心，看看朝鲜的经济和人民的动员。在这里，我们要讨论阿尔都塞的意识形态主体的概念。

还最后第10课，主题是“政治风景画记忆和遗忘的政治装置”我们要见朝鲜的风景画。我们一般一提到风景画，就会认为那是与政治相去甚远的纯粹艺术。在朝鲜的风景画本身就是一个政治风景画。在这里，我们要一起观看朝鲜所说的革命圣地白头山、口號树、红天和桥、还有海浪等多种风景画，进行解释。

但今天是第一堂课，所以这次讲课想先说明一下能够理解朝鲜的基本内容。首先介绍了关于朝鲜政治和社会的整体的讲座。我谈一谈我们看着朝鲜感受到的朝鲜形象。其实朝鲜不是开放的社会，而在对外不知道的情报很多，所以我们拥有对朝鲜的形象非常有限，还有关于某一个的强烈的印象。

我们来谈谈这样朝鲜的形象。而且，对朝鲜的看法就像歌词“近而远的你”一样，具有双重的一面。我们要讨论这双重的看法。

第三，我们要概括朝鲜体制的特性分为政治特性、经济特性、社会特性。因为今后我们要学习朝鲜，所以这是首先介绍对朝鲜的基本知识和情报，能够了解朝鲜的努力。

第四，我们要看看有关朝鲜政治体制的各种争论。其实，很难说朝鲜体制的特性是什么。因为朝鲜体制在某些方面具有普遍特性，同时具有各种特殊性质。根据强调哪些方面，出现对朝鲜的看法差异。我们要看看对这样的各种争论。

第五，我们要比较极权主义政治体制和朝鲜体制。首先，我们要看看弗里德里希-布热津斯基的极权主义和汉娜·阿伦特的极权主义概念。然后，简单地比较极权主义特性和朝鲜体制。

第六，集体体操是体现朝鲜极权主义特性的代表性事例之一。通过丹尼尔·高登导演的《某个国家》纪录片，说明朝鲜的集体体操一样团体演出的意义，看看因此大众的国民化过程和人民的日常生活。这本课就到这里结束。

大众的国民化 对朝鲜的理解和朝鲜体制的特性

1-2 看待朝鲜的视角

继续开始讲课。大家提到"朝鲜"会想到什么样的形象呢？这堂课，我们要谈谈一提到"朝鲜"就会想起的形象。比如说，提到朝鲜，你会想到金正恩、核武器、饥荒、或者一丝不乱的团体演出等吗？想起这些单词，无意中觉得朝鲜是一个非常奇怪的国家。因为朝鲜的政治体制和社会样子与其他国家很不同，所以感觉到了异质感。同时，我们也会想周边国家对朝鲜了解多少。

概括对朝鲜的形象的话，就会发现有这样的样子。"朝鲜是奇怪的国家"朝鲜全面地统治人民，完全是一个划一的社会。朝鲜人民尽忠于金日成、金正日、金正恩。这是一个危险而具有攻击性的武力国家。朝鲜是犯罪国家。朝鲜让人民挨饿。朝鲜是不变的国家。其实，这句话从黑兹爾·史密斯写的《North Korea : markets and military rule》中选出朝来的朝鲜形象或某种固定观念，就"明显的陈腔滥调"的内容。在这里，作者提出了超越这种明显的陈腔滥调，重新想想关于朝鲜。如果超越对朝鲜的明显形象，就会开始看到和这样朝鲜不一样的朝鲜，这种期待感也有。所以首先谈一谈这种明显的看法来看朝鲜的话，会有什么样的形象呢，所以带来了这个内容。这些内容并不是全部错误的内容，也不是全部正确的内容。但是一部分在某些方面具有妥当性，一部分也有可能是误会或固定观念。我要解释这样的内容。

第一，我们想“朝鲜全面地控制人民，完全划一的社会”。通过电视或视频我们经常确认朝鲜地集体演出，完全可以这样想。这张照片是给我们看看朝鲜集体体操的团体演出。朝鲜的这种团体演出、团体操、还有团体表演背景画面等，这完美动作让人们惊讶，全世界震惊。因为会让人想到，到这种程度为止，这么多人到底练习了多少了呢？在这次讲座的后半部分，要讨论实际在朝鲜准备团体操的过程——名为《某个国家》纪录片。通过那个视频详细地了解一下团体操。这样的样子让我们想“朝鲜全面地控制人民，完全划一的社会”。

第二，我们想“朝鲜人民尽忠于金日成、金正日、金正恩”。在这里可以看到挂着金日成、金正日、金正恩肖像画的照片。下面可以看到人们走路的样子，汽车也停着，与此相比，可以推测出这些肖像画的大小非常巨大。在这压倒地大小可以感受到朝鲜领导人的权力。对这些肖像画的详细分析也在以后的讲座中仔细讨论。但是，这种巨大的肖像画是在朝鲜政府悬挂的，实际上没有多少机会了解朝鲜人民的心，因此很遗憾。但是，朝鲜仍然对伟大的金日成首领、金正日将军、和敬爱的金正恩元首进行始终如的思想教育，以及同时向领导人充满了赞扬和光荣的范式。与此同时，我们应该记住，其中也有很多要逃离朝鲜的人。

第三，我们想“朝鲜是一个危险而具有攻击性的武力国家”。实际上，朝鲜随时发射洲际弹道导弹——ICBM，不仅在韩半岛，在全世界也会引发威胁的紧张感。而且产生了核武器恐惧感，在安保方面可能会认为非常危险和攻击性。

这张照片是朝鲜发射洲际导弹的场面制作成音乐影片后发布的视频之一。希望大家也能亲自观看包含这个场面的朝鲜音乐影片。因为之前朝鲜没有对外地公开过这种视频，所以更加受到关注。看这个视频的话，就像什么《漫威》电影或《壮志凌云》电影中的一个场面，或者像绚烂的广告的一个场面一样，非常壮观地展示了发射洲际导弹的场面。瞬间想起来了《壮志凌云》的开幕场面。在航空母舰上飞机起飞的场景的开幕场面中，以紧张感壮观地展现了在飞行甲板上忙碌的控制人员们的样子。朝鲜的那视频上也能看到非常有节奏感的场面——装载洲际导弹的汽车移动、跟随其移动的绚烂的摄像机角度、戴墨镜而穿皮夹克的金正恩登场、看手表的样子、指示的手势、军人反复齐唱等。但遗憾的是，主人公不是汤姆·克鲁斯，而是金正恩。而且相机的导演和速度感还跟不上电影。但是这种豪华的尝试让我觉得朝鲜真的是剧场国家。这个剧场国家的概念解释在接下来的“关于朝鲜政治体制的各种争论”的讨论。反正，这个视频也是对外展示朝鲜在武力领域具有巨大自信的。

但是与壮观的影像不同，实际上随时发射洲际导弹或导弹或进行核试验的行为等会给周边国家带来巨大的紧张感，对安保的不安感和恐惧感。但另一方面，朝鲜的使用武力，实际上也是在国际关系和外交舞台上提高外交协商能力的手段。反正，对于我们来说，这是让我们认真思考韩半岛和平的要素。

第四，我们想“朝鲜是犯罪国家”。2017年，朝鲜金正日的长子而金正恩的哥哥——金正男被暗杀用化学武器 VX 溶液的事件，还有前国防委员会副委员长而金正恩姑父——张成泽被处决事件等，在对外看来朝鲜成为犯罪国家。

例如，张成泽处死时，朝鲜于2013年12月12日举行国家安全保卫部特别军事审判，以“国家颠覆阴谋的极端罪行”判处张成泽死刑，并立即执行。张成泽双手被绑在绳子上，被国家安全保卫部成员抓着站在法庭上的样子被国内外公开，仅此一张照片就足以证明北韓的恐怖政治。我们可以推测这样的场面让朝鲜高层引起了极大的恐惧。朝鲜强调“以人为本”的主体思想，金日成主张“人民为天”，就是人民认为和天一样。金正恩说明他的统治意识形态，说“伟大的金日成-金正日主义本质上是人民大众第一主义”。就他宣布人民大众第一主义为他的统治方式。很难认为这种人民大众第一主义和恐怖政治是并存的。但是朝鲜却对朝鲜劳动党干部们高喊“为了人民进行灭死服务！”灭死服役，顾名思义就是用自己的生命换取人民的幸福。

我们来看一下朝鲜对此的文献。在纠正工作者的工作方法和作风的主要障碍是克服党势和官僚主义。党势和官僚主义是分裂党和群众的最有害的思想毒素和基本障碍。权势和官僚主义不仅仅是一群工作人员的性格问题或事业作品上的问题，而是思想性问题。做权势而官僚主义地话，工作人员失去群众的威信。不仅在政治生命留下污点，而且还会损害党的权威，模糊社会主义的影像，破坏党的革命和建设。张成泽的罪名是，在前面装作拥护党和领袖，后面转动的同床异梦的宗派行为。并且廉价出售国家宝贵资源的卖国行为，还追究了2009年货币改革的责任，在朝鲜带来了巨大的经济混乱，极大地影响了人民生活水平的提高。朝鲜来看，这种行为来自张成泽所拥有的权力，以及其势力和官僚主义，成为“分裂党和大众的最有害的思想毒素”。所以从干部的角度来说，忠于党和首领，为人民灭死服务，就是人民群众第一主义。从人民的立场来看，这应该真正把人民当成了天。我想知道人民怎么想。

第五, 我们想“朝鲜让人民挨饿”。实际上, 朝鲜大概从1994年到1999年经历了“苦难的行军”时期, 以经济危机甚至到朝鲜体制崩溃的危机。推测当时约50~60万人饿死。当然, 现在可以认为有所好转, 但是, 朝鲜仍然经历了疫情大流行危机, 仍然支出着巨额军费, 因此, 现在普通人民的生活仍然非常困难。特别是, 有报告说, 疫情大流行之后, 采取强力封锁政策的朝鲜更加深化了粮食困难。我们希望朝鲜人民不要饿肚子。

第六, 我们认为“朝鲜是不变化的国家”。实际上, 朝鲜并不是急剧变化的社会。仍然强调金日成时代的主体思想, 维持那时代的基本政治而社会框架。但是, 现在朝鲜社会发生了很大的变化。虽然以经济的原因很不容易配给制, 但是以“集市”为中心的市场经济系统也逐渐稳定。就像21世纪初的其他国家一样, 可以说朝鲜正在经历从社会主义向资本主义的过渡。基本上在朝鲜政府的政治哲学和政治调查仍然存在社会主义系统, 但是, 朝鲜经济已经转变为市场经济, 正在经历不可换回的变化。因此, 朝鲜的日常生活也发生了各种变化。所以, 有必要更加密切地观察朝鲜的政治和社会。

那么韩半岛的南韩, 大韩民国怎么来看朝鲜? 对韩国来说, 朝鲜具有与我们同一的历史、文化、语言的一个国家了。但是, 因分段和战争而长期作为具有不同政治实体的存在, 一方面, 在民族上同为同志, 另一方面在安保角度上会成为警戒的对象。我们这样看待朝鲜的观点是两面性的。所以可以说存在对北认识的双重性。

一个是认为朝鲜和我们一起形成民族共同体的当事者，另一个观点是认为朝鲜是威胁韩国安保和生存权的存在。首先，从将朝鲜视为形成民族共同体的伙伴的观点来看，南北是单一民族，具有相同的历史、文化、生活习惯等共同的历史性。随着社会主义圈的崩溃和冷战的结束，韩朝之间也形成了和解与合作的氛围。通过南北首脑会谈努力改善南北关系，推进阳光政策，南北形成了相互体制认可和和平共存的氛围。从现有的排斥和对决对象转变为认可和共存的对象，开始了社会、文化、体育等各个领域的交流。还进行了民间的对朝支援事业和地方自治团体的对朝合作事业。虽然没有办成，通过北美首脑会谈和南北首脑会谈等，进行了无核化协商，努力讨论了韩半岛的和平。

但是，也有观点认为朝鲜是威胁我们生存权的存在。南北分裂以后，经历了6.25韩国战争这一民族的悲剧，那之后还有延坪岛炮击挑衅、延坪海战、天安舰攻击等，随时发生了军事冲突、矛盾和紧张。一直到现在持续导弹挑衅和核威胁。但是，如果只从某一方面的角度来看朝鲜的话，很难形成南北关系的长期而稳定的关系。如果只强调安保观点的话，很难解决韩国-朝鲜之间的敌对关系，同时，无视那安保观点的话，也必然会引起混乱。

所以，现实地需要对朝鲜双重性格的均衡认识。所以在学习朝鲜之前，首先要认识到朝鲜是共存共荣的对象，需要客观地了解和理解朝鲜。然后，我想说的是，应该根据普遍的价值标准来判断朝鲜体制。

其中，客观地了解朝鲜是因为以下原因。我们可以认识到的朝鲜的真相中，有朝鲜当局向往的正式世界朝鲜和实际朝鲜居民面临的现实。作为朝鲜体制的宣传工具的朝鲜的官方媒体——朝鲜报纸和广播等报道的朝鲜可能与朝鲜的实际情况不同，因此通过这些来掌握朝鲜的实际情况是有限的。因此，除了在朝鲜的官方媒体上展现的朝鲜形象一外，还要努力客观地掌握朝鲜居民的实际生活。这内容引用了统一教育院每年发行的《理解朝鲜》中的内容。也就是说，朝鲜他们具有外部的“宣传的朝鲜”，另一方面也具有内部的“实际的朝鲜”。所以我们在学习朝鲜相关知识时，他们强调努力学习实际的朝鲜。

但是，我们在学习的这《朝鲜的政治和社会》讲座想反过来接近。就在分析和解释“宣传的朝鲜”资料时，要观察朝鲜的内部，“实际上的朝鲜”。所以具体来说，通过一直用作朝鲜政治宣传工具的画、照片、铜像、纪念物等视觉性图像来掌握朝鲜体制的特性。这本课就到这里结束。

大众的国民化 对朝鲜的理解和朝鲜体制的特性

1-3 朝鲜体制的特性

继续开始讲课。为了全面地理解《朝鲜的政治和社会》，我想首先概括一下朝鲜体制的特性。朝鲜体制同时具有社会主义的普遍特性和只有朝鲜具有的特殊性质。基本上以计划经济为中心，国家主导经济的运营方式和党优势体制等体现了社会主义的普遍特性，与此同时，领袖中心体制和连到金日成-金正日-金正恩的权力世袭等，也只是朝鲜独有的特殊政治特性。

首先，朝鲜是一党支配的无产阶级独裁国家，就以劳动党为中心的一党支配体制。这意义是掌握权力的一党作为拥有最高地位和权限的权力源泉，比其他机关或团体在更上位位置，支配国家和社会。就是说，国家和社会的每一个机构都在党的领导和控制之下，而一切政策都是党的指示为推动的。

朝鲜体制是在政治上以主体思想为统治理念的领袖体制。初期朝鲜的统治理念和其他社会主义国家一样"马克思-列宁主义", 1980年10月在第六次党代会上, 党章规定"金日成的主体思想就是党的正式指导理念"。关于这个主体思想, 我们要在下一节课上更详细地学习。还有2009年4月修订的《金日成宪法》中, 体现主体思想的"先军思想"被追加为统治理念。追加了体现主体思想的"先军思想"的统治理念。这种统治理念成为了朝鲜式领袖体制的基础。接着, 朝鲜在2012年4月在第四次党代表大会上主张了金日成-金正日主义是朝鲜劳动党永远的指导思想。主张了金日成-金正日主义是朝鲜劳动党永远的指导思想。2019年4月在修订的《金日成-金正日宪法》第3条上发表了代替主体思想和先军思想金日成-金正日主义作为国家建设和活动的唯一指导方针。所以可以说, 以金日成的主体思想为基础, 金正日的先军思想和金正恩的金日成-金正日主义是朝鲜的统治理念。

朝鲜以党-军-国家体系为核心, 构成了最高领导人称霸的领袖为中心的绝对1人统治结构。领袖是领导核心, 党是以领袖为中心的政治组织, 朝鲜是在领袖的唯一领导下统治的极权主义独裁体制。以领袖为中心的体制理论可看到在1974年发表的《确立党的唯一思想体系的十大原则》和1982年金正日发表的论文《关于主体思想》的里面的内容。首领的称号仅限于金日成、金正日、金正恩。在2016年修订的《金日成-金正日宪法》上标记了金日成和金正日为"永远的领袖"。2016年5月, 在第七次党代会给金正恩授予了"伟大领袖"称号获得了领袖地位。在2019年4月修订的《金日成-金正日宪法》上给国务委员长赋予了"国家代表"权限, 在2021年1月召开的第八次党代会上, 金正恩被推举为"朝鲜劳动党总书记", 获得了为最高领导人的权威。

朝鲜坚固地建立父子世袭的1人统治体制, 在领导人视为神圣这一点来看, 也体现了神政国家的特性。这种政治体制具有政治特性, 无论是强制还是同意, 都可以动员大众。

朝鲜体制的经济体系和其他社会主义国家一样，基本保持了国家和合作组织所有生产资料的社会主义所有制观念。是国家负责资源分配的计划经济。可是，在朝鲜虽然有限，但是也承认了个人所有。中央集权命令经济体制，就是基本上是中央集权化的经济，按照中央的指示，按计划运行的经济体制。但事实上，因为朝鲜经济危机，而从1990年代以后，不再正常运转中央集权的计划性管理系统。所以朝鲜在相关机关、工厂、企业等制定自己的计划进行解决，可以说居民们依靠市场——自生自长的市场来维持生存。社会主义责任管理制是综合以前示范地实施的各种措施，于2014年引进的。这制度核心内容是提高了工厂、企业的自律性，计划和经营权限大幅移交给机关和工厂、合作团体的。也就是说，朝鲜是在中央集权的计划经济制度上引入了市场经济要素的一部分的系统，计划经济和市场共存的二元结构。

我们来看看社会特性吧。朝鲜体制的社会特性强调了集体主义原则。因为在朝鲜居民的义务和权利基础在"一个为了整体，一个为了整体"的集体主义原。今天要谈论的朝鲜团体操将成为从视觉上表现朝鲜集体主义的代表性事例。

而且朝鲜有两个家庭。一个是以骨肉为中心的普通家庭，另一个是以领袖为父母的社会主义大家庭。这里说首领是父亲，党是母亲党。这样以领袖为父母的"社会主义大家庭体制"正当化作用为对领袖无条件忠诚和崇拜的逻辑。这本课就到这里结束。

大众的国民化 对朝鲜的理解和朝鲜体制的特性

1-4

关于朝鲜政治体制的各种争论

继续开始讲课，基于这种特性，有很多争论了在规定北朝鲜体制的政治性质的方面。比如说，有多种多样的讨论——规定朝鲜为极权主义国家、神政国家、儒教国家、家族国家、游击队国家、正规军国家、首领制国家、剧场国家等。简单地介绍一下这些性格规定。

第一看法是朝鲜视为极权主义国家。关于这一点，我们要在下一个课详细地学习。

第二看法是，朝鲜领导人的绝对权力是超人的，朝鲜认为神圣金日成一个人的神政国家。朝鲜的情况来看，所有权威的源泉都归结在金日成的伟大性。把统治权威不连接与组织、职位或者人民的支持等，而导出在自然人的超人性伟大就神圣性的话，这政治体制就成为神政体制。朝鲜体制在这一点上不同于20世纪的其他极权主义政治体制。反而类似于政教合一时代的神政体制或以王权神授说为基础的绝对君主制。就是这样看的立场。对于这样神政国家特点，在之后的《朝鲜的政治和社会》讲座，观察各种朝鲜视觉上的图像，我们来讨论领导人怎么具有神圣和超越的权力。

第三，布鲁斯·卡明斯解释朝鲜是儒教国家。儒教的目标是建立封建君臣体制或中央集中王权体制。因此，孔子对询问政治本质的弟子说：“国王像国王，臣像臣子，父亲像父亲，子女像子女。”“国王得像国王，臣得像臣子，父亲得像父亲，子女得像子女。”儒教就是强化君臣体制、中央集中王权体制，他的看法是这样的特性是朝鲜的主要政治特性的。

第四，研究朝鲜初期革命政治的阿姆斯特朗看法：朝鲜是相结合儒家家庭主义和斯大林主义的国家。尤其关注以金日成为中心的集体孝顺。或者，民众和最高领导人的关系就像亲属之间的关系，把现代共产主义体制的朝鲜可以称为“一个家庭国家”。好像首领的责任与传统社会的一个家庭家长的责任一样。他行使绝对权威，他就是对国事的所有智慧源泉，国家的命运就像一个家庭的命运，就是把朝鲜规定为家族国家。

第五，和田春树制定了在关于朝鲜政治史的重要研究书——《北朝鲜：游击队国家的现在》上就朝鲜的政治体制是“游击队国家”。和田春树在这本书上说“确立唯一思想体系和抗日游击队员的模范化之后，接着确立了主体思想，出现了新的国家体制。金日成是游击队司令官，全国人民是游击队队员的国家，可以称之为游击队国家。”

更进一步说，Kwon Heon-ik和Jeong Byeong-Ho认为紧密相关游击队国家和家族国家的概念。Kwon Heon-ik和Jeong Byeong-Ho这样说了“和田春树定义了在关于朝鲜政治史的重要他的研究中把朝鲜的政治体是‘游击队国家’。而且游击队的活动对抗与强大的外部势力的传统，他们的内在纽带被描述为类似于以父爱和孝顺这一强大价值为特征的家族组织。在朝鲜的关系中，家族式的友好关系是革命活动的核心要素，而且，在延长线上，成为革命国家的根本性美德。”

但是，金日成去世后，和田春树修改了游击队国家的概念，还更正为“正规军国家”。捕捉到金日成死后体制变化就金正日的新体制方面，比起游击队国家，更应该将其视为“正规军国家”。比起游击队国家，更应该看为“正规军国家”。1998年写的《北朝鲜：游击队国家的现在》一本书在2002年更名为《北朝鲜：从游击队国家到正规军国家》。

而且还把朝鲜解释为首领制国家。朝鲜是用制度和思想来保障了——在领袖的领导之下，像一个人一样行动的整齐地组织体系和纪律的体制的。就是规定在苏联型党-国家体系上设立领袖的领袖制。

另外，把朝鲜规定为剧场国家的讨论也非常有趣。和田春树这样说，把金日成当作游击队司令官，把全人民以为游击队队员的游击队国家就是克利福德·格尔茨所说的“剧场国家”。他通过仪式把权力夸示，戏剧化的国家称为剧场国家。朝鲜的游击队国家成为他所说的现代很难找不到的剧场国家。游击队国家作为剧场国家需要设计师、导演。担当这责任的是领袖的儿子金正日。和田春树引用人类学家克利福德·格尔茨的印度尼西亚提议政治和权力的壮观的经典研究，介绍了“剧场国家”的概念。作为理解金正日时代朝鲜政治过程和发展的一种范式，他提出了这个概念。Kwon Heon-ik和Jeong Byeong-Ho带来了和田春树的剧场国家概念，主要研究朝鲜的公共艺术作品或大规模壮观场面，探索朝鲜剧场国家性质，也这样说。“相关革命的社会主义国家政治的研究扩大到——歌曲、演剧、电影、群众集会 and 大规模活动，还有各种类似的思想普及和宣传工具等大众政治的各种技术领域。在朝鲜，这种多样的宣传方式被广泛称为‘革命艺术’，这些推广方式提升到了高水平。”“这是通过人为的艺术政治，以抵抗强力领袖权力的自然淘汰的为目的的强有力的现代剧场国家的诞生。”这种剧场国家的概念非常适合说明朝鲜的视觉性和壮观宣传。

像这样，有很多研究非常多样的规定朝鲜的政治体制。这就是现在也不能说朝鲜的政治体制是什么一句话，还包含复杂因素。整体上来看，在这讲座关于朝鲜政治体制的各种争论中，我们来看朝鲜具有极权主义特性和神政国家特性，我们要逐一看看这样讨论。这本课就到这里结束。

大众的国民化 对朝鲜的理解和朝鲜体制的特性

1-5

极权主义政治体制和朝鲜体制

继续开始讲课，概括朝鲜的政治体制，朝鲜是社会主义国家、一党支配的无产阶级独裁国家还有以1名领导人为中心的领袖体制。但是可以比较这样朝鲜的政治体制和极权主义体制。首先，弗里德里希-布热济内县在1956年发表的著作《极权主义独裁和专制政治》中表明了极权主义专制政治体制的特性。这'弗里德里希-布热济内县模式'代表关于冷战时期的极权主义的社会科学概念化。他们指出了'极权主义独裁'的六个特性。

第一，正式的意识形态的存在。极权主义的正式意识形态在激进地拒绝现有社会，具有包含千年王国一样的完美世界蓝图的特性。

第二，存在大概一个独裁者领导的单一大众政党。这些党员热情地献身于正式意识形态，党支配政府官员组织或者与那组织不可分离。

第三，通过密警察的恐怖体制。这样说了。这装置在支持党的同时，还起到在领导一边监督党的作用。这恐怖不仅对政权的敌人，对任意规定的特定阶级也行使。

第四，几乎垄断而控制所有的媒体手段。

第五，几乎完全垄断了所有的武装战斗手段。

第六, 对整个经济根据中央指挥的控制方式。这些讨论也适用于意大利的墨索里尼体制、德国希特勒的纳粹主义以及斯大林的苏联的政治概念。这个概念强调共产主义和法西斯主义具有相似性, 还被用作批判苏联共产主义乃至共产主义社会一般的冷战的概念工具。这些社会科学极权主义概念的特性是包含了对当时马克思主义解释的根本性批判, 当时法西斯主义以为资本主义的产物。

弗里德里希和布热济内县认为极权主义和资本主义从根本上是有区别的, 他们理解这极权主义是共产主义比资本主义有很多共同点的体制。他们聚焦在行使权力和恐怖的政治过程和手段这一制度性装置上, 定义了极权主义。

但是, 从传统观念进一步, 1951年出版的汉娜·阿伦特的《极权主义的起源》中叙述的极权主义概念强调人学因素。就现有的社会科学极权主义概念聚集在极权主义国家权力行使的总体恐怖的制度装置和手段上, 可以说, 阿伦特关注人性存在模式——根据这种制度性装置和极权主义国家而放在总体恐怖的条件下的人类。

阿伦特所说的人性是人类精神内面的要素有关——主体性、自发性、思维能力、个性、集体连带等。而且阿伦特所说的极权主义可以说是“总体支配”、“总体恐怖”。这总体支配不是说彻底的支配, 强调作为那支配的结果而导致的“人性的丧失”这一方面。还有, 阿伦特说了总体恐怖主义的本质功能和效果会破坏人类的多样性, 让所有的人成为一体一样。个性的剥夺就实现所有人的划一, 建立“人类的剩余性”。

著述《阿伦特传记》的伊丽莎白·杨·布鲁尔整理的《汉娜·阿伦特的极权主义概念的5个核心要素》如下。《汉娜·阿伦特的极权主义概念的5个核心要素》如下。第一，提示关于世界和历史的总体说明中，存在规定"优越的民族"和"内部敌人"的意识形态。第二，这是总体的恐怖。纳粹的集体收容所和苏联的劳动收容所就是典型的例子。第三，破坏自然的人间关系。解散家庭而禁止出身成分不同人之间的结婚等都属于这一类。可以说，可全部被破坏了人和人之间的私人领域。第四，按照官僚体制的统治。这就是超越单纯的官僚主义，比起军队，更信任秘密警察的现象。第五，主张一种"绝对的主权"，正当化了帝国主义的意识形态。

如果再加上人与人之间的集体连带丧失、人类个性的破坏和人类的剩余性等的讨论的话，我们可以进一步扩展地理解阿伦特的极权主义概念。也就是说，在现有的极权主义概念上，应该添加因总体恐怖的结果而引发的人类学结果。这不是单纯地判断极权主义与否——以追求极权主义的国家权力的恐怖活动的形式，而是关注在它是否破坏到人间的人类性的。每个学者或冷战时代前后，根据什么时期，规定极权主义的概念也一点不同。阿伦特强调不仅国家权力和恐怖的制度装置，还强调人类性的存在方式。像这样，因极权主义而丧失根本的人性，可体现了阿伦特坚固的意志——强调激烈地观察那惨淡的人性结果。

但是，观察朝鲜的立场来看，因为实际上无法见到朝鲜人民，所以我认为了解朝鲜人民的人性存在样式和人人性的丧失的是有很多研究限制。虽然也有可能受到批评——批评共产主义的冷战的概念武器。首先，我们要看看以弗里德里希和布热济内县表明的极权主义的6个共同特性为中心，比较朝鲜的政体体制。他们前面所说，镇压国民的独裁体制中最恶劣的独裁体制被称为"极权主义独裁体制"。希特勒的纳粹党和斯大林的共产主义统治等是典型的极权主义独裁体制。如果比较弗里德里希和布热济内县的极权主义独裁国家的6个条件和朝鲜体制，就会发现非常相似。它简单地整理用表格的话，应该可以说明如下。

在朝鲜存在支配人类生活所有局面的正式意识形态的主体思想，存在世袭金日成、金正日、金正恩的一人统治的朝鲜劳动党，党和秘密检察，比如通过国家保卫部的恐怖体制，垄断连广播、电视频道的公众媒体，还有存在武装力量垄断和中央控制经济。以这些特性为中心来看的话，朝鲜可以说弗里德里希和布热济内县提出的6个特性都具备的典型的极权主义体制。但是，朝鲜具有这种极权主义的特性，也具有了1名领导人视为神圣，而承认他的无限权力的新政国家的特点。

这节课谈谈关于极权主义特性，在接下来的后讲课中还要介绍朝鲜的神政国家特性。这节课就到这里结束。

大众的国民化 对朝鲜的理解和朝鲜体制的特性

1-6

大众的国民化：《某个国家（State of Mind）》纪录片

继续开始讲课。朝鲜具有极权主义国家特性。朝鲜这么能到大众的国民化？就朝鲜人民怎么成为金日成的人民？

首先，我想介绍一部纪录片——可以深思这些内容的关于朝鲜的纪录片。英国丹尼尔·戈登导演的《某个国家》是2005年的纪录片。丹尼尔·戈登执导了2002年制作的《千里马足球队》之后，第二部作品《某个国家》，还有2006年《蓝眼睛的平壤市民》。通过《千里马足球队》对戈登导演产生好感的金正日认可了他采访准备团体操的两个少女及其家人，也认可了拍摄游戏的一部分。朝鲜来说，这是一部破例地全力支持的电影。所以在这部电影可看到了实际上从2003年2月到9月的8个月时间朝鲜的两个少女Hyeon-soon和Song-yeon准备团体操的过程。

西方认为个人价值比什么都重要，但是对难以理解的朝鲜体制的集体主义封闭性，丹尼尔·戈登没有看无条件地批评目光，也没有盲目地理解，而是选择了平静地展现的方式。反而，通过自己的嘴朝鲜人赞扬而担心对自己的祖国、对领导人的样子，都展现出来地记录下来了。消除对生活在这个奇怪的国家的人们的无条件偏见，给我们客观思考的机会。如果有时间的话，一定要看一次。

那么在正式讨论对丹尼尔·戈登的《某个国家》纪录片之前，为了理解，首先说明一下朝鲜的团体操。在1947年根据金日成的指示下，朝鲜的集体操首次亮相后，1971年11月在国家体育指导委员会下设立了“集体体操创作团”。平壤体育大学里成立了“团体操创作系”。因此，在炫耀体制的目的下，出现了北朝鲜特有的“团体操”。按照朝鲜的《文化艺术词典》，团体操是囊括大集体的综合性体育艺术，以体操和舞蹈律动为基本表现手段，这是参加数多人员的规模庞大的体操艺术形式之一。

这内容表明了“在历史画幅里反映出来以大史诗的形式——把我人民走过的辉煌胜利历程和政治、经济、文化、军事等各个领域所取得的成就”。在朝鲜，作为政治教养的好手段，这个“团体操”被恰当地利用。就在政治活动或国家纪念日等场合，5~10万人演出大规模团体操。决定团体操演出的话，会在3个月或者6个月的时间练习，主要动员住在平壤市内的高中学生。这期间他们要准备大大小小的物品而动员以后要不停地重复练习。在这种过程中，身体虚弱的学生会精疲力竭，因为如果稍有不慎就会受到指导老师的处罚，所以千万不能大意。

在朝鲜的“团体操”演出中最引人注目的是“背景画面”。在朝鲜被称为“背景队”。各种图画和文字以及立体而律动的形象，用于说明体操队和音乐无法表现或难以形象的主题。动员到这个背景队的参加者也是年幼的学生。朝鲜的背景画面让人们赞叹不已，因为那规模和瞬间的技术，以及精巧而壮观的场面。但是表演这个动作的学生们却流着血汗不能放松心情，整个演出过程中都要紧张起来。

朝鲜的表演艺术以集体主义精神为基础，创作出了很多具有集会性性质强的演出作品，正在不断开发各种类型的混合或在体育场馆的大规模演出形式。1999年根据金正日的指示制作的"大团体操和艺术演出"是朝鲜演出形式中规模最大的。出演每年有10万名演员，活用15万席规模的大型体育场大部分。在现有的团体操上相结合新艺术演出，就音乐、话剧、舞蹈、教艺等的大规模体育场演出，就是这个大团体操和艺术演出。

和团体操同时，背景队表演背景画面，再加上舞蹈场面、专业艺术家的独唱和演技等加强艺术性的演出。在这大团体操和艺术表演演出血海歌剧团、万寿台艺术团、平壤教艺团等朝鲜顶级专业艺术家团体，加强艺术表现。使用正式的舞台装置和照明。过去的团体操是在国家体育指导委员会掌管的体育活动的一部分，但是现在在文化省直接掌管大团体操和艺术表演。2000年，在《百战百胜朝鲜劳动党》首次亮相的大团体操和艺术演出，通过2002年的《阿里郎》演出，在朝鲜成为一种体裁。朝鲜的团体操其实是体操和音乐相结合的巨大的综合艺术。

但是，过去德国希特勒极权主义时代强调国民体操一样，内含了能够带来大众的民化的政治性。只用语言或教育来强调的集体主义和用身体直接体会和学习的集体主义只能是不同的。

下面我们暂时引用一下研究德国希特勒极权主义的乔治·莫斯的《大众的国民化》。民族在表现自己时，提供合适地构成国民礼仪的神化和象征的是民族纪念碑和公共庆典。但是它们并不是一个一个存在的。在19世纪和20世纪的导入部分的时候，一些团体担当了重要作用——保存和扩张新的世俗宗教方面这里所说的当时德国的公共庆典是指体操爱好者协会、男性合唱团、射击爱好者协会等活动。因为对朝鲜的团体操的说，再引用一些乔治·莫斯的关于体操的讨论如下。“通过体操热爱祖国”的前提是“教诲和生活要统一”肉体和精神上的统一是最重要的教训。体操爱好者协会认为自己是民族中兴的催化剂。他相信庆典决定地作用对于爱国精神起来的。行为和象征对于保持群众之间的连续性很重要。这种礼仪意味着神圣的行为，因为这是让无秩序的群众转变为具有一些纪律的大众。体操爱好者协会会员们的庆典不断地相结合了肉体修炼和民族象征及礼仪。那是一种崇拜的殿堂。这成为为了全国体操纪念仪式的特定空间。

应该有很多因素使德国的极权主义成为可能。看希特勒的《意志的胜利》一样的纪录片，总是让人们怀疑的是，在这个时期，大众怎么会那样支持希特勒的呢？但是乔治·莫斯问道：“德国大众怎么成为希特勒的国民了呢？”，不仅是体操爱好者协会、射击爱好者协会、男性合唱团，也是各种庆典、话剧、电影、合唱、歌剧、团体操、体育、群众大会、照明、行进、国民礼仪、雕像、纪念碑等等，都是实现大众国民化的主要要素之一。其中，通过体操的祖国之爱是教诲和生活统一在一起的，通过体操实现肉体和精神统一是最重要的教训。

朝鲜也是一样。朝鲜的团体操是基于“一个整体”的极权主义，可以说是最能表达极权主义理想是壮观的集体艺术。通过这一过程，人民认为实现统一人民的肉体和精神，成为真正的共产主义型人类

纪录片《某个国家》展示了从朝鲜团体操准备的基本练习阶段到最终登台演出的全过程。作为体操选手参与这个团体操比赛的两个女孩，十三岁 Hyeon-soon 和十一岁 Song-yeon 虽然年龄小，但忍受着严酷的训练，正在学习和熟悉。在我们看来，练习的地方是又冷又粗糙的水泥地，感觉很惨，但这些女孩正在流着汗珠。而演出当天，伟大的将军没能参观演出，令两位姑娘十分失望。这也再次确认了他们对领导的尊重成都。但是，这个《莫个国家》展现了走向极权主义和极权主义的大众民主化，事实上，通过 Hyun-soon 和 Song-yeon 悄悄地揭开了朝鲜人民的日常生活。这些是更加集中。

这部纪录片还提供了一个了解居住在平壤的朝鲜知识分子家庭的机会。虽然父亲是一位教授，但他还是在谈论饥饿的苦难行军时期的困难。朝鲜人民说停电是经常发生的事情丹尼尔·戈登通过朝鲜人民的口，冷静地传达了朝鲜的这些不完美之处。还有在家里出现了只一个的国营电视节目，给我们看看每个家庭安装的收音机。还介绍说，收音机可以降低声音，但不能关掉。这表现出必须单方面听取国家声音的全体主义特性，对朝鲜人民来说，这是他们的非常自然日常生活。还有在练习的时候，给大家看两个少女的日常生活。展示少女们的失误、叽叽喳喳和愿望、挫折和喜悦的 Hyun-soon 和 Song-yeon 是我们日常生活中遇到的平凡又有梦想的少女。无论在哪里，人活着的日常生活不同，但也有相似的东西。也会想到那样的平凡。这部纪录片通过团体操展现了全面的控制和划一切的社会，同时，也会思考生活在这社会的人们的日常生活。

今天以“大众的国民化，关于朝鲜的理解个朝鲜体制的特性”为主题开始了《朝鲜的政治和社会》。我们仔细看了一提到朝鲜就会想起的形象，我们韩国是虽然和朝鲜同一个民族，另一方面也表现出双重的观点，即它也是一种给人以安全危机意识的存在。但正因为这样，我们更需要了解和理解朝鲜的过程。

所以本次讲座概述了朝鲜体制的政治、经济、社会特点，帮助了对朝鲜的整体地理解，我们查看了解释和规定朝鲜政治体制的各种争论。有把朝鲜视为极权主义国家的立场，也有把朝鲜视为新政国家的立场，查看了儒教国家、游击队国家等各种讨论。尽管如此，依然很难用一个词来定义朝鲜体制的特性是什么。

在本次讲座中，我们整理对极权主义概念的讨论，比较了极权主义政治体制和朝鲜体制。但是，直接规定朝鲜政治体制为极权主义国家，不如认为神政国家、剧场国家等多种特性重叠在一起。通过显出朝鲜极权主义特性的代表性事例《某个国家》的纪录片，查看了朝鲜大众的国民化过程和人民的日常生活。希望今后在《朝鲜的政治和社会》讲座中与大家愉快地见面朝鲜。这本课就到这里结束。

기타학습요소

〈퀴즈〉

1.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1인 지배의 유일 대중정당에 의해 통치되며,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그리고 대중매체와 무장력을 독점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2. 북한 지도자의 절대권력은 초인적인 것으로서, 북한은 김일성 1인을 신과 같이 신성시하는 정치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3. 북한의 권력이 의례를 통해 과시되면서 연극화하는 국가를 칭하는 용어이다. 주로 북한의 노래, 연극, 영화, 군중집회, 대규모 행사, 선전 등 공공예술 작품이나 대규모 스펙터클에 주목하여 북한의 국가성격을 말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
4. 다니엘 고든(Daniel Gordon) 감독의 〈어떤 나라(State of Mind)〉(2005)라는 북한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로, 북한에서 정치적인 행사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5~10만명의 대규모로 공연하는 체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5. 조지 모스는 독일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연구하면서 체조동호회, 남성합창단, 사격동호회 등의 공공축제와 민족기념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이 대중을 자연스럽게 히틀러의 국민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지 모스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참고영상〉

-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에 대해 알아보자. (09:18)
▶ https://youtu.be/_hwY5e5HD8Q?si=CJSI8odM-B8Mgmaf
- 한나 아렌트의 사상에 대해 이해해보자. (16:59)
▶ <https://youtu.be/2Xba0fmrX2Y?si=cP2-umOH8JAVQeRy>
- 뮤직비디오를 통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해보자. (03:26)
▶ <https://youtu.be/hlfnO34-5uk?si=k2QQOG6MiSUOqc-S>
- 북한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자. (48:07)
▶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53591/22000275698>